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259-01

2009 북한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요약문)

국가인권위원회

본 책자는 연구를 담당한 북한인권정보센터에
의하여 제작되었음

본 책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2009 북한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를 요약 · 발간한 것이다.

본문은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및

북한인권정보센터 홈페이지 (www.nkdb.org)에서

PDF로 다운 받을 수 있다.

연구 수행 기관 : 북한인권정보센터

< 목 차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9
2. 정치범수용소의 개념 및 현황 ····· 9
3. 수용소 인원 및 통폐합 과정 ····· 10
4. 수감 전 예심과정 ····· 11
5. 재판 및 이송과정 ····· 12
6. 입소과정 ····· 13
7. 관리 주체 및 경비체계 ····· 15
8. 관리체계, 수감자 통제 및 관리의 방법 ····· 17
9. 관리자 및 수감자 수칙, 규정 ····· 21
10. 징계의 절차 ····· 23
11. 징계수준 및 내용 ····· 23
12. 수용소 내부 구금시설 종류와 기능 ····· 24
13. 작업반 운영실태 및 역할 ····· 28
14. 생산시설 및 작업장, 생산물 처리실태 ····· 29
15.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의 인권 실태 ····· 30
16. 주거형태 ····· 30
17. 식량과 부식 ····· 30
18. 강제노동의 목적 ····· 36
19. 노동의 양과 강도 ····· 36
20. 학교운영 목적과 학교현황 ····· 46
21. 학교생활 및 노력동원 ····· 46
22. 공개처형 및 비밀처형 실태 ····· 49
23. 고문 및 폭행 실태 ····· 54
24. 일반주민의 인식 ····· 57

24-1. 정치범 처벌자 목격 및 관련 인식 ····· 57

24-2.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인식 ····· 57

결론 및 제언 ····· 59

<정치범수용소 실태 증언자>

위 치		증언자	경험유형	경험 당시 연령대	경험 기간
11호 수용소 (함북 경성군)		안명철	(경비대 근무)	10대~20대	1987.7~1987.11
12 · 13호 수용소 (함북 온성군)		A 08	(보위원 근무)	20대~50대	1967~1992
14호 수용소 (평남 개천시)		신동혁	가족 수감	출생~20대	1982~2005.1
15호 관리소 혁명화 구역	함남 요덕군 입석리 (가족 혁명화)	A 05	가족 수감	40대	1976~1980
		A 11	가족 수감	10대	1976~1980
		김영순	가족 수감	30대~40대	1970.10~1979.1
		강철환	가족 수감	10대	1977.8~1987.2
	대숙리 (독신자)	A 12	독신 수감	20대~30대	1994~1997
		A 10	독신 수감	50대	1995~1998
	구읍리 (서림천)	A 04	독신 수감	20대	2002~2005
		A 06	독신 수감	30대	2003~2006
	용평리	김영순	가족 수감	30대~40대	1970.10~1979.1
18호 수용소 (평남 북창군 석산리)		A 01	가족 수감	출생~10대	1972~1984
		A 09	가족 수감	출생~30대	1975~2000
		0명오	가족 수감	20대~30대	1994~2000
22호 수용소 (함북 회령시 중봉동)		A 02	(목격/ 보위원 가족)	–	1994~1994
		안명철	(경비원)	10대~20대	1990~1991 1992~1994
기 타		A 03	(보위원 가족)	20대	1994~1995
		A 07		30대	15호수용소 관리자 성인자녀와 지인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본 실태 조사 보고서는 그 동안 말로만 주장하던 비밀정치범수용소 (관리소)가 북한에 실존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아직도 5개소 정도에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부녀자, 어린이 및 아기들을 포함한 무고한 희생자들이 재판 없이 그리고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이유도 모른 채 죽을 때 까지 극악한 환경에서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비밀 수용소와 직접 경험이 있는 증인 17명과 2009년도에 한국에 도착한 북한 동포 322명, 국제단체의 각종 보고서, 언론보도, 수기 및 증언을 근거로 하였다.

2 정치범수용소의 개념 및 현황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북한에서 정치적 죄를 범한 당사자와 그의 가족을 수용하여 가혹하게 처벌하는, 사회와 격리된 수용소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치범은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조사와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처벌수준의 결정과 수용시설 관리도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담당한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명칭은 한국에서는 주로 정치범수용소로 명명하고 있으나, 북한내부에서는 관리소로 불리며, 그 외에 완전통제구역, 닫힌 구역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수용소 내부에서는 군부대 형식의 '0000부대'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조사에서는 17명의 수감자 및 관련 경험자를 심층면접 하였으며, 이들은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8호, 22호를 경험한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현재와 과거의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3 수용소 인원 및 통폐합 과정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현재 6곳으로 밝혀져 있으며, 대략적인 수용인원은 20만 여명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4호 개천수용소 5만 여명, 15호 요덕수용소 5만 여명, 16호 화성수용소 2만 여명, 22호 회령수용소 5만 여명, 25호 수성수용소 5천여 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인민보안성에서 관리하는 18호 북창수용소는 정보부족과 최근 이동 및 개편에 대한 정보 때문에 구체적 수용인원을 추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www.nkdb.org)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인권 데이터베이스인「NKDB 통합 DB」를 활용하여 북한 구금시설 중 정치범수용소에서 구금된 사례에서 연좌제로 구금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35.7%가 연좌제로 나타났다.

"아버지는 장가를 갔는데 어머니랑 같이 관리소에 들어왔어요. 무슨 정치범 사건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친할아버지 문제로 그렇게 됐대요. 아버지가 왜 들어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제가 그 안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이주민인데, 죄인의 자식이라는 것은 생각을 안했어요. 죄인 자식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A01, 18호 경험자)

"왜 들어갔냐면 그때 우리 영감이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데 "김일성 후계를 내오면서 아버지가 아들로 정한 것은 좋은데 김정일 사진을 올려 모시는 것은 아버지(김일성)가 살아있을 때는 올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것을 직장에서 얘기한 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직발(다른 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족이 다 관리소로 들어갔어요."

(A05, 15호 임성리 경험자)

"할아버지가 할머니도 모르게 월남했다고 해서 우리 가족을 관리소로 잡아갔어요. 그저 월남자 가족이라는 거지 다른 것은 들은바 전혀 없어요. 아버지나 할아버지, 조상들 때문에 들어온 가족의 자식들은 거의 다 20년~30년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심화조 사건으로 관리소에 많이 들어왔는데 봉화총국장, 건설총국장, 건재공 업부장 이 사람들 다 들어왔어요.

심화조 사건이 있고 그 사건으로 온 사람들 들어올 때 보니까, 차에 짐이랑 사람이 가뜩했어요."
(A09, 18호 경험자)

이와 같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는 대부분 북한체제와 김일성부자에 대한 말실수(정치적 발언), 정치적 숙청과 종파사건 등 반당 종파사건 연루자, 월남자, 지주 및 자본가 계급 등 적대계층, 그리고 연좌제에 의하여 수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4 수감 전 예심과정

사건 당사자에 대해서는 예심과정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지만, 사건 당사자가 아닌 가족의 경우 연좌제에 의하여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심을 거치지 않고 체포 된 후 곧바로 수용소에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에 아버지가 벤또를 싸서 일하러 갔는데 잡아가서 안 돌아왔다고 했어요. 예심이나 조사받는다는 내용도 전혀 없고 그냥 잡아간거에요."
(A05, 15호 임석리 경험자)

"아버지가 잡힐 때 예심이란 것도 없고, 아버지랑 온 가족이 다 같이 새벽에 몽땅 실어가더라고요. 그 전에 아버지를 보위부에서 한 번 불러서 "이런 말 한 적 있는가" 물었대요. 그리고는 다른 확인도 하지 않고 새벽에 다 실어갔어요. 사발이랑 내 먹던 쌀만 들고 나온거죠."
(A11, 15호 임석리 경험자)

"1977년 8월 초순, 도금사업(메끼)을 하던 강철환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1961년 북조선으로 귀국(북송사업)하여 평양에서 지내다 귀국자 집안의 불법체포가 시작되면서 요덕수용소로 체포, 구금되었다. 당일 새벽 4시 보위원은 "빨리 짐을 챙기고 차에 타라니까 뭘 하고 있는거

야!" 라며 군홧발로 차며 밖으로 내몰았다. 현관 앞에는 소련제 신형 '지르' 트럭 2대가 시동을 걸어 놓고 대기하고 있었고 지르 트럭으로 이동된 사람은 강철환의 부, 막내삼촌, 할머니, 8살 여동생이며, 강철환의 모는 이송되기 전 보위원 전재근 과장에 의해 '젊은 오마니는 다른 집을 더 싸서 후에 가기로 되었으니 그리 아시오' 라는 말을 듣고 남겨졌으며 그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동경로는 평양 시내를 지나 강동과 성천을 지나 양덕(온천지역으로 유명)을 지나 월왕령 고개를 넘어 요덕 수용소에 도착하였다."

(강철환, 15호 입성리 경험자)

5 재판 및 이송과정

북한에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경우 재판과 이송과정을 살펴본 결과 공식적인 재판을 거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덕 가기 전에 국가보위부에서 사람이 내려와서 나를 불러서 내 문건 내용이 사실인가 확인하고, 손도장을 찍게 했어요. 그게 비판서란 말이에요. 그게 '이만큼' (10cm 두께) 되는데 그걸 하나씩 다 넘기면서 도장을 찍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저 앞으로 나가서 도강하지 말고 일 잘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 저한테 보위부 동복을 주고, 제가 옷이랑 내의랑 없으니, 구류장에 들어온 여자들 옷을 회수해서 내게 줬어요. 그리고는 풍차가 와서 요덕으로 갔어요. 후에 물어보니까 집에서는 전혀 몰랐다고 그래요."

(A04 15호 서림천 경험자)

"요덕 갈 때 재판 안 받고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심원이 와서 이만한 서류 주면서 읽어보라 해요. 그러면서 나갈 때 되니까 수표 하라 합니다. 며칠 있다가 국장 방에 데리고 가서 국장하고 간부들이 들어와서 제가 00번인데, 00번 일어서 하면 일어납니다. 국장이 제 문건 읽죠. 3년 혁명화다 하고 그럽니다. 2년은 예심기간이었기 때문에 1년은 요덕에서 관리한다고 하지요. 보위부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바로 요덕으로 갔습니다."

(A10 15호 대숙리 경험자)

이러한 과정에서 판사와 변호사 등 일체의 공식적인 재판 절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0월 00일 저녁에 담당 취급자가 불러서 "너 내일 간다." 고 하길래, "어디로 갑니까?" 물으니, "가서 혁명화로 3년, 머리를 깨끗이 씻고 나오면 된다." 고 했습니다. 재판 같은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A06 15호 서림천 경험자)

"어떠한 죄도 없는 나야 두말할 것도 없고, 처벌 받은 당사자인 나의 아버지조차 변호사는 커녕 형식적인 재판이나마 단 한 번도 받았던 적이 없다. 나의 아버지 경우만 보아도 6개월간 예심원들에게 조사시키고는 재판소도 아닌 사회안전부와 제2경제위원회가 짜고들어 "18호 관리소" 에 들여보내기로 결정해버렸다. 로동당원 혁명화에 무슨 변호사며 재판이 필요한가, 속해있던 직업이며 당직을 무조건 다 떼버리고 관리소에 들여보내면 끝인 것이다. 관리소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재판받고 들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 (0 명호 18호 경험자)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중 상당 비율은 수용소에서 출생한 것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체포와 조사, 재판과정에 대한 질문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

6 입소과정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입소과정은 모든 수용소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관리소는 종신이에요, 한 번 들어간 사람은 나올 수 없어요, 거기는 비밀대상이라 바깥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안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A02 22호 경험자)

"요덕 혁명화는 노동으로써 자기 죄를 씻으라고 거기에 보낸 거예요, 처음에 가자마자 보름

동안 외래에 있었어요,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허약 걸린 게 많으니까, 우선 거기서 그거 퇴치합니다."

(A04 15호 서림천 경험자)

"너희는 ~~~ 정치범이니까 만 3년을 혁명화를 해야 한다, 그런데 죽어서 나가면 죄과를 벗지 못하고 계속 가족들한테 꼬리표가 붙는다, 그러니까 살아서 나가야 한다, 여기서 잘하면 3년 만에 나가고, 못하면 연장될 수 있다." 하더라고요."

(A11 15호 임석리 경험자)

다음날, 3명을 모아 놓고, 한사람씩 불러서 "한 3년 있다 가라", "한 2년 있다 가라", "있는 기간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나보고는 "2년 있다 가라" 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3년 있다 왔어요, 거기 있다보니까 2년 있다가 나가는 사람들이 없길래, 속으로 나는 3년쯤 있다 나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앞에 사람들이 3년이 기본이었고, 생활못한 사람들은 5년 있다 나가고 했으니까."

(A12 15호 대숙리 경험자)

"또 한참을 가더니 마침내 목적한 곳에 도착했다, 흰 모래가 선을 이뤄 깔린 위로 철조망을 휘둘러쳤으며 보초막도 없었다, 감시등 두 개가 200미터 까지 비추었고 쌍보초가 서있는 무시무시한 곳이었다, 중좌가 쌍보초에게 뭐라 말하자 가시철망을 친 대문이 열리고 차가 들어갔다, 오른쪽에는 시커멓고 뾰족뾰족한 건물이 우뚝우뚝 솟아 있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정신병자 수용소로 움직일 수 없는 독감방의 건물이었다, 철조망이 조선인민경비대 2915군부대, 즉 15호 요덕 정치범수용소인줄을 꿈엔들 알 수 있었으랴, 문 앞에 도착할 때까지 정치범수용소인줄은 전혀 몰랐다."

(김영순 15호 임석, 용평리 경험자)

완전통제구역은 북한 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자격이 상실되지만, 혁명화 구역은 공민의 자격을 유지한다.

7 관리 주체 및 경비체계

모든 수용소 외곽은 철조망과 감시초소, 그리고 다양한 탈출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용소 내부로의 진입은 물론이고 외부로의 탈출은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순찰하는데, 군견을 데리고 순찰을 해요" (A08 13호 경험자)

"정치범마을과 가족마을 사이에는 폭 5M, 높이 2M, 길이 800M에 이르는 돌담이 둑처럼 있었다. 특히 13호는 사회와 인접해 있었고 중국도 매우 인척에 있었다. 종성마을에서 차로 10분도 안되는 거리에 있었는데, 거리마다 경비대 차단초소가 있었다. 정치범가족마을(풍천지구)에는 작업반 보위원들이 쓰는 담화실이 있고 본주소 역할을 하였다. 산중턱에는 높이 20미터 둘레 30미터 콘크리트 포대와 병영 방탄벽, 포대가 있었다. 포대와 포대 사이에는 고사기관총이 4정이 있었다." (안명철 11, 13, 22호 경험자)

"농장과 각 공장은 여러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농장과 공장별 담당 보위지도원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작업반 담당 보위원은 3개 작업반에 1명씩 있었다. 수용소 경비를 위해서 임시초소(이동초소)는 관리소 경계 50m에 하나씩 있었는데, 임시초소 안에 경비대 사람이 있는지는 몰랐다. 관리소 경비를 위해 골안 들어가는 입구에 경비대 청사가 크게 있었다."

(신동혁 14호 개천 경험자)

"우리가 자는 병동은 시멘트 담 위에 철조망을 둘러 친 울타리로 둘러싸였어요. 처음에 통제구역으로 들어가서 차로 조금 가면 우리가 있던 병동이 나와요. 거기는 카메라가 설치돼서 감시하고 있었고, 남자들은 자체로 경비가 있었고, 여자들은 그냥 소대장이 감시를 겸했어요. 전체적으로는 보위지도원들이 밤낮으로 정문에서 통제를 했어요. 사람 나가고 들어오는 거 감시하고, 밤에는 도주자 감시하고요." (A04 15호 서림천 경험자)

"수용소 관리는 보위원이 했는데, 우리가 있던 곳의 철조망은 담장 2미터 정도의 높이에 220

볼트 5~6줄 전기줄이었는데, 전기 철조망은 총 60~70센치 정도인 듯 했어요. 여기 초소부터는 보위원이 관리하고 있었어요." (A06 15호 서림천 경험자)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개 연대가 요덕을 지킨다고 하데요. 산꼭대기에도 매복조가 있어서 탈출하면 다 잡힌다고 했어요. 거기가 다 산이어서 그리고 근처 마을도 모두 보위부에 매일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뛰어도 다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뛴 놈들 많이 총살했어요"

(A10 15호 대숙리 경험자)

"내가 있던 수용소 관리 보위원 선생은 5명이었어요. 1반, 2반(중대), 3반, 종합반 담당 보위원(운전 담당) 선생이 있었어요. 종합반은 나중에 중대로 통합됐어요. 그리고 과장이 있었고 한 달에 한 번씩 정치부장이라는 사람이 왔었어요. 보통은 사복을 입고 있었고, 사형이나 회관에 모여 얘기할 때는 정복을 입었어요." (A12 15호 대숙리 경험자)

"수용소 관리는 보위원이 세게 담당 감시했다. 수용소의 삼엄한 경비와 감시체계는 꼼짝달싹 못 하도록 이중 삼중으로 쳐놓았다. 철조망으로 수용소를 둘러싸고 2백 미터에 하나씩 포대경을 세워놓았다. 그 바깥쪽으로는 뾰족이 깎은 나무들이 서있어 탈출을 막고 있었다. 수감된 정치범들은 서로가 모두 감시대상이고 물어뜯는 관계이기 때문에 도주가 불가능했다. 보위부는 이러한 수법으로 경비를 철저히 했다." (김영순 15호 입석, 용평리 경험자)

"15호 관리소를 경비하는 인민경비대 인원은 약 1,000여 명이며, 이에 대한 관장을 국가보위부 7국에서 맡아하고 있었다. 수용소는 높이가 7~8미터는 족히 될 듯한 높다란 망루 두 개가 보였고 그 위에는 군인 두 명이 기관총을 거총하고 있었다. 그들은 AK 자동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경비대 군인들이었으며, 망루를 중심으로 2~3미터 높이의 담장이 있고 그 위에 철조망이 쳐져 끝도 한도 없이 길게 뻗어 있었다. 15호 관리소는 경비가 매우 삼엄했고 수용소 전 지역의 경계선에는 산을 따라 높이 3~4미터 정도의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고, 지대가 낮은 곳에는 2~3미터의 담장이 있고 그 위에는 전기 철조망이 쳐져 있다. 고산지대에는 철조망 주변 곳곳에 함정을 파 놓았고 그 함정 바닥에는 참나무를 뾰족하게 깎은 참나무 창을 만들어 놓았

다, 그리고 철조망을 따라 1킬로미터 간격으로 망루로 된 감시초소가 있으며 그 망루에는 기관총을 거총하고 눈을 번뜩이는 감시원이 항상 지키고 있었다."

(강철환 15호 임석리 경험자)

"18호 관리소 봉창리의 경비체계는 철조망을 촘촘하게 높이 올려져있어요, 14호 군대가 지키고 있고 산에도 높이 철조망이 쫙 쳐져있고 상리에도 철조망이 있는데 전기가 흐르는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18호 관리소에는 안전부 초병 아이들이 지켜요." (A09 18호 경험자)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몰래 달아나려는 시도들도 한두 건이 아니었다, 그러나 철조망 넘어서는 달아날 수 없다, 철조망 공사를 하는 것을 본 적 있는데 완전히 살인도구였다, 주변에 빙 돌아가며 전기철조망을 쳤고 그 밑에 차단도랑을 깊이 파서 그 속에 예리한 창들을 빽빽이 박고 주변 숲 사방에는 멧돼지 잡이 덫들도 숨겨 놓았다, 거기에 걸린 사람은 팔다리가 돼지덫 이빨에 꽉 물려 달아나지 못한다, 또 철조망 옆 나무에 판자를 깔아 그 위에 돌을 가득 올려놓고 보이지 않는 노끈을 늘여놨는데 그걸 건드리면 순간에 돌벼락을 맞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러므로 관리소 밖으로 달아나지 못한다." (이명호 18호 경험자)

8 관리체계, 수감자 통제 및 관리의 방법

북한 정치범수용소 관리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수용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에 있어서 수용자 상호간의 감시와 밀고, 그리고 수용자 내 간부들을 활용하여 통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감자들은 보위원보다 수감자 중에서 선별된 작업반장, 소대장 등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하게 되고, 이들로부터 직접적인 통제와 구타, 고문 등을 당하고 있다.

"각 공장은 여러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장별 담당 보위지도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작업반 담당 보위원은 3개 작업반에 1명씩 밖에 없다. 수감자통제와 관리를 위해서 작업반장 위에 총 반장이 있는데, 이 총 반장은 각 지역 담당 보위지도원이 직접 선출한다. 관리소는 보위지도원, 총 반장, 작업반장 순으로 위계가 확실히 잡혀 있다. 내가 있던 피복공장은 총 반장 단 한명이 전체 2,500명을 관할하였고, 총 반장과 작업반장은 모두 남자였다. 피복 공장에서는 경비병 없이 일을 했고, 보위지도원 1명과 그 아래 총반장, 작업반장을 두고 일을 하는 구조였다. 결국 보위원 1명이 수용자 간부들을 활용해서 2,500명 수감자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신동혁 14호 개천 경험자)

"관리소 내 소대장부터 일 안하고, 경비도 일하지 않고 인원점검만 합니다. 그 사람들은 편합니다. 일이랑 잘하고, 말도 없어야 하고, 또 오래 있은 사람들이 소대장하고, 경비도 하고 합니다. 소대장은 담당 선생들이 뽑고, 경비는 분주소에서 특별히 뽑습니다. 평양에서 온 높은 사람들이 경비도 하고, 탈곡장 내려가서 책임자도 하고, 독립 임무도 합니다. 수용소 생활 중 서로 싸우거나, 소대장에게 반항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사상투쟁에 부쳐집니다. 사상투쟁은 문제가 생길 때 그때그때 열어서 관리위원회 차원에서 합니다. 담당선생도 참여하고, 그 안에서 생활총화를 이틀에 한번 했습니다. 10일 총화도 있습니다. 그 안에 직맹이 있고, 사로청도 있고, 당원도 있습니다. 밖에서 하던 조직생활을 여기서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사상투쟁이 있고, 잘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자기 과제를 무조건 수행해야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이 입조심입니다. 서로 보고 들은 것을 옮기지 말고, 밖에서 있던 얘기를 하지 말고,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고, 어쨌든 말 잘못하면 지도원에게 불려가서 혼나고, 구류장에도 갑니다."

(A04 15호 서림천 경험자)

"보위원 아래 중대장(합숙-독신자)이 있고 세대는 작업반장 1명, 분조장은 여러 군데 있죠. 5인조는 서로 살피는 거죠, 어디로 도망가나 감시하죠, 일러바치는 사람이 있겠죠, 다 비밀이죠, 그 저 선생님이 바깥에서 불러서 가면 종이에다 감시한 것 적어서 주죠, 그렇다고 아무런 혜택은 없어요, 그게 젤 마음이 힘들죠, 밤에 집에 들어가면 못 돌아다녀요, 옆집에도 못가요, 감시라고 그런 건 없어요, 아무도 왔다갔다 안 해요, 혹시라도 과오가 되면 큰일이 나죠, 거기서도 생활총화를 했지요, 등잔불이 보이지 못해서 읽을 수 없어서 고생했죠, 분조별로 총화를 했어요, 그때 당원은 나까

지 11명 있었는데, 나는 당원들끼리 모여서 당 생활총화를 했어요. 당증 가진 사람들은 전부다 과장들, 다들 책임일꾼들이었어요. 당원들 살던 지방은 여러 군데였어요.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요."

(A05 15호 입석리 경험자)

"관리위원회 보위원사무실에는 보위원 2명이 교대로 근무를 섰어요. 그러나 보위원을 제외한 관리위원장도 수감자이고 그 아래는 모두 수감자들이에요. 아무튼 그랬어요. 보위원이 많이 있지만 좀 밖에 나가야 있고 구역 안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았어요. 구역 밖으로 보니 보위원이 꽤나 많았어요. 대숙리가 제일 안에 있어요. 밤에도 경비(수감자)가 1시간에 1번씩 불키고 와서 사람들 다 세 봐요. 경비는 대체로 5명인데 특대우를 해요."

(A10 15호 대숙리 경험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총출동이에요. 그 사람 찾을 때까지 전부가 일을 안하고 찾아요."

(A11 15호 입석리 경험자)

"입석리 있을 때 마을 단위 작업반은 선생님으로 불리는 담당 보위지도원이 통제했다. 공업대대는 감독이 있고 선생이라는 보위원은 영예군인인 대대장이었다. 그 아래로 통계원과 소대장이 있었다. 작업반 각 부분에 담당 보위원이 한명씩 담화실에서 담화하고 통보로서 통제하며 심한 경우 수용소 내에 구류처분을 했다. 용평리에서도 담당보위원과 그 아래로 감독이 있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반동적 간첩행위로 구치소로 끌려갔다. 스파이들인 분조장, 통계원을 통해 잡고, 그들의 눈을 피하는 것이 일이었다.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또한 용평리는 생활총화 대신 사상투쟁회의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수용자들간에 서로 때리게 했다."

(김영순 15호 입석, 용평리 경험자)

"수용소에서 일을 할 때 조로 구성이 되며 1개 조는 다섯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조마다 그 조를 대표하는 조장이 있다. 각 조 위에는 감독이 있으며, 감독은 수용자의 작업을 지휘하고 작업량을 검열했다."

(강철환 15호 입석리 경험자)

"관리소 안의 생활은 나 아니면 곧 남이며 아무리 둘이 친하게 지낸다고 하지만 상대방은 보위부 스파이던지 안전부 스파이로서 입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저자도 보안원이나 보위지도원에게 끌려가 "여기 놈들은 다 지주, 자본가 계급이구 치안대야. 기리기 때문에 너가 여기 있으면서 야네한테 뭐 쪼고마한 현상이 있으면 제때 와서 보고하라" 이라는 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감시가 예리하고 심하기에 모든 생활에서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 쓰면서 말하였습니다. 그저 무사하려면 입만 열면 쌍소리나 내며 머저리처럼 살아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명옥 18호 경험자)

"수용소는 먹을 것이 금쪽 보다 귀한 곳이므로 식료공장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스파이가 특히 많았다. 혼자만 깨끗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한테 미움을 받으면 어느 틈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머니에 콩알 몇 개가 들어가 있어 모함에 빠지게 된다. 교원들은 스파이 노릇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책임량을 한 번쯤 적게 해준다든가, 혁명정신이 투철하다며 치켜세워 주던가 하는 방식으로 정보원 역할을 요구한다. 또한 작업은 자기에게 할당된 작업량을 마쳐야 하는 것은 물론, 자기가 속해 있는 조의 다른 조원들도 할당량을 다 마쳐야만 작업을 끝낼 수 있다. 휴식시간이 아닌 때 쉬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인간에게 할 수 없는 모진 역설과 견디기 힘들 만큼의 구타를 하고 휴식을 취한 당사자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조의 다른 사람들까지도 모두 작업시간을 연장하는 벌을 받게 된다. 소위 '연대처벌'을 가하는 것은 서로 투쟁하게 함으로써 수용자끼리 서로를 감시하게 하거나 작업의 능률을 올리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강철환 15호 임성리 경험자)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차별적 보상을 통한 경쟁 심리를 자극하는 방법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 본능을 자극하는 것이다. 수용소 측은 음식, 수면시간, 그리고 결혼이라는 방법을 활용한 성욕을 통제하거나 허용하는 방법으로 수감자들을 통제하고 상호간의 경쟁을 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감자들은 좀 더 많은 식사와 수면시간 그리고 이성간의 성적 만족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인간적인 생활환경에서 더욱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9 관리자 및 수감자 수칙, 규정

개천 14호 완전통제구역 출신인 신동혁은 완전통제구역의 수감자들이 지켜야 할 10대 법과 규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주할 수 없다. 둘째, 셋 이상 모여 있을 수 없다. 셋째, 도둑질을 할 수 없다. 넷째, 보위지도원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 다섯째, 외부인을 보거나 수상한자를 보았을 시 즉각 신고해야 한다. 여섯째,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이상한 행동 발견 시 즉각 신고해야 한다. 일곱째,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는 넘쳐 수행해야 한다. 여덟째, 작업 외에 개인적으로 남녀 간에 접촉할 수 없다. 아홉째, 자신의 과오를 깊이 있게 뉘우쳐야 한다. 열째, 관리소의 법과 규정을 어겼을 경우 즉시 총살한다.

"경비대나 보위원을 만나면 어디서든지 하던 일을 멈추고 무릎을 굽히거나 허리를 90도 꺾어 인사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무자비하게 구타를 당하거나 구류장에 끌려간다."

(안명철 11, 13, 22호 정치범)

"수칙이라고 정해져 있어서 보고 외우는 그런 것은 없지만, 대체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많아요. 거기 들어가면 외래에서부터 듣게 되고, 먼저 온 사람들이 알려주고, 보위지도원들도 처음에, 그리고 사상투쟁 할 때 말해줘요. '남녀 간에 서로 아무것도 오가지 말아야 한다.' 어떤 여자들은 밥이랑 남겼다가 남자들 주잖아요. 그런 것도 제기되면 벌 받아요. 밥을 안주거나, 노동강도를 세게 하고, 생활총화 시간에 비판 대상으로 취급하고 그래요"

(A04 15호-서림천 정치범)

" '3인조 통제' 반드시 3인조가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조원 3명이 모두 같이 가야지 혼자는 화장실 못 갔습니다. 조원 내에 정보원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보원을 하지 않았는데, 정보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속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A06 15호 서림천 정치범)

"수칙 및 규정은 하루일과를 다해라, 남들과 밖에 있었던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도주하면 무조건 사형에 처 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A12 15호 대숙리 경험자)

강철환은 요덕 수용소의 수칙과 규정 중 자살금지, 죄수 상호간 인사금지, 노동현장에서 지켜야 할 규칙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금지이다, 배정철(저자 강철환의 짝)의 아버지가 자살을 해서 배정철이 결석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배영삼)는 자신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유서를 써놓고 림산골에 들어가 자살하였다, 보위원들은 '배영삼은 조국과 민족을 등지고 자살한 민족반역자' 라고 말을 했고 남은 가족들은 몇 년 더 수용소에서 살아야 한다고 했다, 수용소에서는 자살한 사람은 물론 가족도 민족반역자로 낙인찍히게 되고, 수용기간도 5년 더 연장시킨다, 이렇게 보위부가 별별 수단을 다 써가며 자살을 막으려 하지만, 자살건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한 달에 몇 건씩은 꼭 자살사건이 발생하였다, 자살은 통상 목을 매지만, 양잿물을 먹는 사람도 많았다, 자살한 사람의 시신은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 현장에서 차에 싣고 어디론가 가지고 간다, 그리고는 인부들을 시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파게하고 시신을 묻는다, 그곳은 다시 예전처럼 평평하게 길을 만든다, 그 이유는 아무도 묘를 찾을 수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이것을 '평토해치운다' 고 말한다, 즉 자살한 사람은 모두 평토해치운다, 독신자 한명이 도주하여 사흘 동안 도주자를 찾아 산을 헤매었으나 결국 찾지 못한 적이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임산작업을 하다가 일행과 일부러 떨어져 자살을 하였다, 병풍산 제일 깊은 골짜기에 신발을 벗고 반듯이 누워있었다"

"둘째, 수감자 상호간 인사금지이다,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지은 장본인이건 가족이건 상관없이 모두 죄인이기에 죄인끼리 서로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수용소 측의 규칙이다."

"셋째, 노동현장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다, 아침 점검시간은 5시30분으로 세 번 지각을 하면 하루 결석으로 치고 하루 치 배급을 빼게된다, 각 작업량 정량과 작업시간은 5인 조장이 알려주는

데로 실수 없이 해야 한다. 매일 작업이 끝난 후에는 정기학습이 있고 한 주에 두 번 강연회가 있으며 정기학습과 강연회는 정신개조와 혁명정신 고취를 위한 필수교육이다"

(강철환 15호 입석리 경험자)

"관리소에 처음에 들어가면 지역별로 모아 놓고 교양실에서 학습관리를 하는데, 노동안전 학습규정을 시키고 몽땅 갱에다 넣습니다. 관리소 준칙은 10가지가 있는데 장군님 보위사업과 관련해서 밖에 나가서 말하지 말라는 것, 앞으로 나가서 얘기하면 다시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준칙이 있는데, 나는 어렸을 때 들어가서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해제될 때 그 준칙을 다시 한 번 읽어주었습니다. 준칙을 어기는 경우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살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A09 18호 경험자)

10 징계의 절차

정치범수용소는 수감자의 통제와 공포감을 통한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규정을 위반한 수감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하고 있다. 그러한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체포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과정에서 무자비한 구타와 고문이 자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11 징계수준 및 내용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수감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으나, 징계수준은 공개처형 및 비밀처형, 외부 수용시설 이송, 내부 구금시설 구금, 처벌노동, 감식, 공개비판, 해제 지연 및 종신형 전환(혁명화 구역의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수용소 내부 구금시설 종류와 기능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모두 내부에 특별 구금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치범수용소 내 구금시설에 수감될 경우 가혹한 수감 환경 때문에 석방 후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감자들 사이에 특별 구금시설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공포감을 통한 수용소 내부 통제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치범수용소별 수감자에 대한 자체 징계 내용과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보위원과 정치범이 부화했다는 이야기를 보고하면 보위원은 생활제대감이고, 정치범은 처형되어야 했다. 사을지구 3반 관리담당 보위원 최철수가 92년 가을 정치범과 부화하여 임신시켰다가 생활제대되어 탄광으로 쫓겨났다. 그 여성은 비밀처형되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 여성이 다른 활용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처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정보원이었던 경우). 처형 건이 아닌 정치범들의 경우, 처벌로동이라는 벌을 받았다. 탄광지구의 경우 처벌노동 기간 동안 일주일에 갱 밖으로 한 번 나올까 말까하며, 식사량도 반으로 줄여서 주었다."

(안명철 11, 13, 22호 경험자)

"죄인이 죄를 범했다 하면 수성교화소 보내요, 형기 끝나면 다시 자기 자리로 와요, 영원히 해제란 것은 없으니까, 재판도 해요, 내부적으로 재판기관이 다 있어요, 정치부 안에 재판부서가 있고, 판사도 있어요, 이들은 모두 보위원이죠, 재판을 죄인들 앞에서 해요, 공개재판이에요, 예심도 받고, 구류장에서 예심 받아요, 동포에 구류장이 있었어요, 칸이 5개나 있었겠는지, 거기는 예심을 받을 때 있는 곳이에요, 재판 받을 때까지 있는거죠, 재판을 받으면 용서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수성교화소로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관리소 자체가 힘든 곳인데, 구류장은 더 심해요, 그래서 구류장은 죄인들이 무서워하는 곳 이예요, 거기서 풀려나도 혼자 집에 못가고, 데리러 가야 해요, 남녀가 여자는 27세, 남자는 30세가 되기 전에는 결혼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성관계를 가지면 처벌을 받아요, 성관계의 경우는 그 안에서 제일

힘든데로 보내서 일을 시켜요. 탄광의 밀차를 미는 일이나, 농사에서 제일 어려운 물길공사에 동원한다거나 그래요. 그런 때는 집에도 안보내고 천막 같은 곳에서 자면서 계속 물길공사를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처벌이 되죠." (A08 13호 경험자)

"우리에게 큰 처벌은 삼백처벌이었다. 이것은 자기의 정량 밥에서 절반을 떼어 받는 것이다. 학교 내 통제에 대해서는 각 반에는 학급반장이 있는데, 선생님이 지목해서 정한다. 학교생활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선생한테 매를 많이 맞았지만, 선생의 지시 하에 학급장이 때리기도 했다. 고등중학교에도 인민학교와 마찬가지로 한 학년에 학급장이 1명, 각 반에 반장이 1명씩 있는데, 학급장과 반장은 선생님들이 똑똑한 아이들을 선발해서 시켰다. 학급장과 반장은 군기를 잡기 위해, 혹은 일을 시키기 위해 친구들을 때리기도 했는데, 만약 일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학급장이나 반장이 선생에게 혼나기 때문에 학생들을 때리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나는 비밀감옥의 고문실에서 고문 받은 경험을 갖고 있다. 옷을 모두 벗겨진 채로 거꾸로 매단 상태에서 달아오른 숯불에 허리를 닿이게 하는 고문을 받았다. 몸을 심하게 요동치니까 보위원은 숯불통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허리에 닿도록 하였고 그래도 계속해서 몸을 요동치자, 보위원은 끝이 뾰족한 갈고리로 배꼽 아래(사타구니)를 찍어 관통시켰다. 이는 더 이상 요동치지 못하도록 갈고리로 고정시키려고 한 것이었다. 그렇게 고문을 받고 혼자 독방에서 약 20일 정도를 있었다. 이후, 매일 세 끼의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신동혁 14호 개천 경험자)

"어쨌든 말 잘못하면 지도원에게 불려가서 혼나고, 구류장에도 갑니다. 밥을 안주거나, 노동강도를 세게 하고, 생활총화 시간에 비판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서로 싸우거나, 소대장에게 반항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사상투쟁에 부쳐집니다." (A04 15호 서림천 경험자)

구류장은 보통 한 달씩 갔다 왔습니다. 구류장에 갔다 오면 개처럼 질질 끌려서 왔습니다. 한 끼 밥 3숟갈을 주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무릎 꿇고 꼼짝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구류장에 갔다 나온 남자는 거의 100%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습니다"

(A06 15호 서림천 경험자)

"순수하게 규율위반 아니면 일 못한거, 제때 못들어온거, 밤에 외부에 나간거, 이런거로 걸려요. 잘못을 저지르면 밥 안주는 것도 있고, 온 소대가 한께 굶은때도 있고, 한번은 우리 소대에서 달구지 소대가 불나서 그거 껐는데 잘못꺼서 다시 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프로 나무 채벌했어요, 하루에 나무 3개씩 개인당 했어요, 그땐 국도 없는 줴기밥만 먹고 그랬어요, 그 안에 구류장은 따로 못 봤지만 크게 잘못하면 다른 골안으로 보내는 거는 봤어요, 죄는 어떤 것인지는 몰라요, 못나오는 데서 일 잘해서 오는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A10 15호 대숙리 경험자)

"밖에서 있었던 일, 해서는 안될 말을 했다든가, 그 안에서 좋지 않은 말을 했다든가, 교양되는 것은 안보이고 일하는데 불평이 많고, 제도에 대해 불만 하는 말을 한다든지 하면 구류장에 보내요, 사회를 비난하는 소리를 해도 그렇고, 남녀간에 부화가 나도 구류장에 가죠, 수용소에는 구류장이 있습니다, 산나물 뜯으러 갔다가 용평사람 만나서 들은 얘기를 말해서 금00가 구류장에 갔습니다, 0신호(54년생 정도)가 일하는 과정에 작업지시를 거부하는 식으로 돼서, 불평 많고, 하라는대로 안 해서 1달 갔다 왔어요."

(A12 15호 대숙리 경험자)

"주로 사상투쟁회의 등을 통해 죄인을 잡아낸다, 말실수를 하거나 그렇다, 잘못한 일이 있을 경우 15호 수용소 보위부 청사 내의 구치소로 끌려갔다, 보위부 청사는 정문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그곳에 들어가면 살아남지 못한다, 사상투쟁회의를 통해 서로 때리게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말실수를 한 죄인들을 잡아들이며, 스파이 등을 통해 입수된 정보로 적발한다, 족쇄를 채워서 끌고 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돌아오는 경우가 없다."

(김영순 15호 입성, 용평리 경험자)

"수용소에서는 구타가 가장 흔한 처벌제도이다, 누구나 사소한 실수에도 어김없이 구타를 당하게 된다, 구타로 안 되는 수준의 것은 구류장에 보낸다, 구류장은 말 그대로 수용소의 규정을 어긴 사람, 물건을 훔친 사람, 은밀히 연애를 한 사람, 그리고 보위원의 지시에 불복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구류' 시키는 곳이다, '구류장' 에 갇힌 사람들 중에는 밭에 있는 옥수수나 콩을 훔치다가 발각된 경우가 가장 많다, 보위원이나 감독에게 미운 털이 박혀 들어간 사

람도 많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한 달간 구류장 신세를 지고 나오게 되며 이 구류장은 보위원 사택마을의 한 귀퉁이에 자리 잡고 있다. 구류장 안은 철창으로 된 좁은 감방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그 가운데 복도로 간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감시를 한다. 일단 이곳에 들어온 사람은 아침 5시에 기상한 이후부터 밤 12시 취침하기 전까지 계속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야 한다. 단지 무릎을 펼 수 있는 시간은 식사시간과 대소변을 볼 때 뿐 이며 이처럼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생활을 한 달씩이나 하고 나면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이라도 폐인이 되다시피 한다."

(강철환 15호 입석리 경험자)

"관리소 안, 더 내부에 지옥처럼 특별 구획을 두른 교양소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 교양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교양생" 이라고 부르며 6개월 이상부터 1~2년의 형기를 먹은 사람들로 그들은 우선 머리카락을 빡빡 깎아버려요. 관리소에 교양소가 필요한 이유는 왠만한 사람들 즉 까다로운 사람을 무조건 기죽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에요. 교양소는 노동강도는 쎈데다가 먹이는 건 거의 없고 죽이기 딱 좋게 만들어져 있어 두 달만 지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뼈만 남게 되요."

(o명호 18호 경험자)

"혁명화작업반이 보피지구에 있었어요. 거기는 단련대예요. 담장이 있어요. 그 안에서 자면서 농장일도 하고, 돌도 까고 나르고, 그런 힘든 일을 하죠. 그런 사람들은 관리소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예요. 여자관계, 도둑질해서 들어간 것, 갱 설비를 다루다 고장시켜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A01 18호 경험자)

이와 같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자체 내 규정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특별 구금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그 처벌 수준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13 작업반 운영실태 및 역할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고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농장과 공장 등 다양한 작업 공간을 갖고 있으나, 이들 작업현장은 기본적으로 작업반 단위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반의 크기와 운영형태는 농장, 공장 등 각 작업현장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략 수십 명에서 100명 전후 규모로 구성되며, 작업반은 노동의 기본 단위이면서, 수감자의 생활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기본 단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수용소별 작업반 운영형식을 보여주는 증언은 다음과 같다.

"2호골에 위치한 피복공장에는 여자 2,000명, 남자 500명 정도가 배치되었고 피복공장은 12~13개 정도 작업반이 있었다. 인원은 2,000~3,000명 정도 수감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작업반은 수리작업반, 운반작업반, 재단작업반, 재봉작업반, 보일러작업반, 전기반 6개 반으로 나누어 관리되었다. 수리작업반에는 전동기 수리공, 재봉기 수리공, 전기공이 있었고, 한 수리작업반 인원이 40명 가량 되었다. 모든 작업반은 2교대로 나누어 근무하여 밤에도 수리작업을 하였고, 재봉기는 1,000대 정도 있었고 재단사가 따로 있었다. 한 작업반은 보통 4~5분조로 나뉘는데, 한 분조 당 20~3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 작업반에 100~150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신동혁 14호 개천 경험자)

아침에 7시에 현장 나가고, 저녁 6시, 7시까지 일하고, 어떤 때는 더 늦게까지 일하고 농사짓는 일을 했어요. 강냉이, 감자, 콩 등… 근데 일이 바깥에서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농사짓는 것이 다 규정대로, 책대로 해요. 말로는 '주체농법의 요구' 대로 해야 한다고 거름도 인분을 손으로 하나하나 넣어야 하고, 풀도 하나 없이 다 매야 하고, 일을 못하고, 자기 공수를 제대로 못하면 밥을 절반으로 주고, 저는 농사도 짓고, 염소 키우는 일도 했어요."

(A04 15호 서림천 경험자)

"1~4반까지는 재일교포들이 있었어요. 과자, 사탕 생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직접 보지는 못해요. 멀리 있으니까 거기를 다닐 시간이 없어요. 또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이랑 말할 재간

도 없고 말 못하게 해요. 그것밖에 없어요. 다 강냉이 심고, 어쨌든 노동으로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5반부터 9반까지 가족세대는 다 있어요. 농장일을 해야하니까요. 남자독신세대는 7반에 있었고 여자독신세대는 9반에 있었어요." (A11 15호 임석리 경험자)

22호 관리소의 식료공장은 모두 20~30대 처녀들이 운영했다. 이곳에 들어오려면 담당보위원에게 잘보여야 하는데, 얼굴이 곱고 아첨이 많아야 하며 입도 무거워야 했다. 식료공장은 2층 건물로 아담하고 공원같이 꾸려놓은 사격형 건물 한가운데 연못까지 만들어 놓았다. 탄광에는 갱 안전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서 언제 사고가 터질 지 몰랐다. 동발목(굴에 설치하는 안전목)도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 탄광지구에서는 매일같이 사람이 죽어나갔다. 구식으로 곡괭이와 삽으로 탄을 캐고, 두더지처럼 기어다니면서 탄을 캐므로 더 그랬다. 또 석탄을 광차에 실으려고 해도 키가 닿지 않아 광차에 올라 질통을 부렸는데, 그때에 광차속으로 함께 빨려 들어가 탄 무지에 묻혀 죽는 일도 다반사였다. 갱도는 두더지굴로 사람이 누워서 겨우 석탄을 캘 수 있었다. 여자도 남자들과 똑같이 석탄을 캤다. 탄광의 남녀 비율은 5:5였다."

(안명철 11, 13, 22호 경험자)

14 생산시설 및 작업장, 생산물 처리실태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자급자족 체계로 되어 있어서, 농축산물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공산품도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광산, 공산품 제조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은 자체에서 소비되고 그 외의 부분은 수용소 외부로 반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산품의 반출은 정치범수용소가 북한 경제에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운영은 사회통제와 정치적 목적 이외에 경제적 목적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5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의 인권 실태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25호 수성을 제외하면 모두 감옥과 같은 집체형 건물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농촌마을, 공장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노동하게 된다. 또한 외부와 차단된 폐쇄된 환경에서 살아가면서도 수용소 자체가 자급자족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수용소 운영체계에 따라서 상시적인 생명의 위협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인간 생존의 절대적 기준인 의식주와 보건, 의료에 대한 보장이 완전히 수용소 측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보호의 수준이 생명과 인권에 대한 보호와는 거리가 먼 상태이기 때문이다.

16 주거형태

이들의 주택은 흙벽돌 또는 시멘트 벽돌과 돌 등을 이용하여 수감자들이 직접 지은 것이고, 벽지와 장판, 유리문 등은 없는 상태에서 비닐로 창을 가리고 제한된 시간 전기를 사용하고 공동수도와 화장실을 사용한다. 옆집의 소리가 모두 들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생활 보장은 불가능하며, 상호 감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17 식량과 부식

정치범수용소는 개인의 사적 활동을 전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배급되는 식량과 부식만으로 생존을 영위해야 한다. 그러나 수용소 측에서 배급하는 식량과 부식은 생명을 위협할 만큼 적고 노동의 강도는 매우 세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만성적인 영양결핍 상태에서 생활하고, 다수는 그로인한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옷 공급은 없어요. 기워서 입어야 하죠. 신발 공급이 있는데, 95년경부터는 그것도 공급이 안됐다고 그래요. 식량은 1인당 500g줘요. 그래서 죄인들은 강냉이밥도 많이 먹지 못하고, 고기는 맛도 못 보니 영양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할수있어요…, 그것을매달 조금씩 나눠줘요.

그 돈으로 사먹는데, 그것도 각자 분배된 량이 있어요. 비누 같은 거는 사회에도 부족한데, 관리소에는 당연히 주지 못하죠."

(A08 13호 경험자)

"옷은 6개월에 한 번씩 작업복이 나오고, 신발도 1년에 2켤레 나오지만 양말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 겨울에도 양말 없이 다녔다. 양말이 없으니 그냥 천 조각으로 발을 둘러 싸매기도 한다. 옷은 벽에 못을 박아서 걸어 두고 옷장 같은 것은 없다. 속옷도 만들어서 입는데 팬티만 입고 다녔다. 관리소에서는 작업복만 주고, 장갑이나 다른 것은 주지 않았고,, 이와 벼룩이 많아 옷에 이가 기어 다녔다. 그래도 깨끗한 아이들은 옷을 빨아 입었지만, 옷을 빨아 입지 않으면 옷이 찌들어서 빳빳해진다. 더구나 갱에 배치되는 비율이 높은데 탄광에 배치되었다고 해서 특별난 옷을 주는 것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가서 자기가 빨아서 입어야 한다. 그래서 탄광에서 일하는 아이들의 옷 상태는 말이 아니었다."

(신동혁 14호 개천 경험자)

"갱(탄광)과 농장의 1일 배급량은 원래 1인당 옥수수 쌀(강냉이 쌀, 강낭 쌀) 900g인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g은 절약미라고 해서 떼어놓고 700g만 주었다. 인민학교를 다니는 경우 1일 학생 배급량은 300g이고, 고등중학교 1~4학년은 1일 400g, 5~6학년은 1일 500g을 받는다. 부식으로는 염장 배추 3포기와 소금을 조금씩 받았는데, 보통 배추 1포기로 한 끼 정도 먹지만 일년 내내 염장배추만 부식으로 받았다. 배급을 받으면 그 날 다 소화시켜야지 식량을 모아 둘 수 없었지만, 어머니는 배급을 조금씩 더 탔기 때문에 몰래 조금씩 식량을 남겨 두기도 했다."

(신동혁 14호 개천 경험자)

"수용소 집은 시멘트로 지은 것으로 방바닥과 벽면이 모두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벽은 회 가루로 하얗게 칠해 놓았고, 바닥엔 장판이 없기 때문에 시멘트 위에 그대로 잔다. 난방은 나무

를 쓰지 않고 석탄을 사용해서 불을 땠다. 집에 울타리 같은 것은 없고, 도로에서 부엌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방이어서, 옆집에서 코 고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이다. 즉,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 창은 비닐 방막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 일반 주택 창문 크기 정도 된다. 방막 자체가 회색으로 뿌옇게 되어 있어서 집안은 들여다 볼 수 없지만 방막이 있어도 겨울엔 매우 춥다.
수도시설이 없어서 공동 우물물을 날라다 먹었다. 각 마을마다 시간을 알려주는 종이 있는데 30분에 한 번씩 종을 치고, 새벽 4시부터 종을 치기 시작해서 매 30분마다 종을 친다. 부엌의 식기로는 사발(밥그릇) 몇 개, 숟가락, 식칼, 도마, 가마솥(이동할 수 있음), 냄비가 있고 젓가락은 없는데 젓가락을 만들어서 쓸 수 있지만 젓가락을 사용해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보통 없다. 이불은 처음에 모포 두 장식 나누어 주는데 베개는 만들기가 쉬워서 천에 겨를 넣어서 만들어 쓰고, 바늘과 실은 준다. 밥상은 없어서 그냥 바닥에 밥을 두고 먹었다."

(신동혁 14호 개천 경험자)

"거기 밥은 강냉이밥인데 죽처럼 쑤어서 160g을 주고, 국은 대체로 소금국, 반찬은 염장무가 있었어요. 그거 먹고 남자들은 허약 걸린 게 많아요. 여자들도 간혹 있는데, 제가 금방 갔을 때는 여자가 2명이 허약으로 금방 죽었어요. 여자들은 그 안에서 무역 같은 것을 해요. 옷을 주고 낱알을 받고, 식당 아이들에게서 가마치도 얻어먹고, 탈곡장, 독립 임무로 나간 사람들한테서 받아먹어요. 주고받는 거죠. 우리가 자는 병동은 시멘트 담 위에 철조망을 둘러 친 울타리로 둘러싸였어요. 거기서 옷은 안 주고, 필수품은 줘요. 학습장, 연필, 비누, 신발, 칫솔, 치약을 줬어요. 먹을 것은 밥 외에 안주는데, 연간 계획을 넘쳐 수행한 사람들한테만 12월에 설날 전에 엿 1kg, 콩기름 1병을 줬습니다. 그러면 콩기름은 국에다 넣어 먹고, 가끔 떡이 나오면 떡을 찍어 먹습니다. 떡은 명절에 나눠 줍니다. 강냉이떡입니다."

(A04 15호 서림천 경험자)

"거기는 대부분이 농사일을 하는데 분배 몫으로 통강냉이를 줘요. 방앗간이 있는데 거기 가서 눈을 땄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강냉이를 못 먹겠더라고요. 처음에 한 열흘은 못 먹었어요. 그저 거기서는 먹는 것이 제일 큰 고통이에요. 강냉이는 꾸준히 줬어요. 한 사람 당 700그램은 줘요. 그런데 그것이 껍데기 나가지, 송치가 남지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700

그램이라고 해도 얼마 안 돼요, 배급을 안 준적은 없어요, 농사해서 생산이 되면 좀 줘요, 배추는 공급으로 줘요, 감자도 줘요, 굶어죽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쥐를 잡아먹는 것도 없고요, 우리 집은 학생들이 다 여자애들이니까 배급이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A05 15호 임성리 경험자)

"옷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옷 입는게 다릅니다, 처음 들어올 때 가져온 것을 입습니다, 결국 그 안에서 나간 사람들이 있으니, 남녀 성별 없이 옷을 돌려 입습니다, 먹는 것은 강냉이밥인데 죽밥 같은 것입니다, 늄식기(일반 사발)로 높이 3센치 정도로 아래에 깔렸습니다, 그것도 일을 못하면 밥이 반으로 감식됐습니다, 여자 병실은 방이 2개로 한 방에 10명씩 생활하고, 나머지 여자들 몇은 탈곡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방은 길쭉하고 비좁진 않았습니다, 이불도 직접 가져가지 않으면 없습니다, 새까맣고 네모난 빨래 비누를 가끔 줬습니다, 3년 동안, 가제 천으로 된 생리대 1회, 칫솔 2회 줬습니다, 치약은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집에서 치약을 가져갔었고, 안 가져 온 사람은 같이 쓰기도 했습니다."

(A06 15호 서림천 경험자)

"식사는 식당에서 중대별로 따로 먹어요, 밥은 거기서 먹는 남새에다가 국하고...강냉이 분쇄해서 강냉이 죽을 밥으로 먹어요, 가루가 아니고 강냉이쌀로 먹어요, 그 안에서 뱀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그래요, 몰래 덫을 놔서 잡아요, 멧돼지나 노루는 보위부에 바쳐야 하지요, 거기서 입쌀은 1년에 2번 먹어요, 2.16 점심때 한끼, 4.15 태양절 점심때 한번 나머지는 다 강냉이만 줍니다, 농사짓고 바치고 남은거로 우리가 먹는 거예요, 설날에는 안 나오고요, 고기는 안줘요, 설날에 돼지 잡아서 고기는 보위부한테 벨은 우리가 먹고 그러죠."

(A10 15호 대숙리 경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영양실조에 걸리고, 그저 지옥이나 같지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겠는가 하는 생각밖에 없죠, 아이들도 고달프고, 정말 이런 데가 있을 수 있는가 하죠, 말로는 이렇게 술술 나오지만, 실제 그때 생활하면서는 심정이 죽은 목숨이나 같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생활용품 같은 거는 없어요, 위생대 같은 건 전혀 없어요, 지금 북한에서도 군대밖에 못써요, 군대에서도 위생대 받아서 안 쓰고 돈으로 바꿔요, 천을 빨아서 써요."

(A11 15호 임성리 경험자)

"옷을 주거나 한건 없고, 신발은 1년에 한번 씩 줬어요. 옷은 나간 사람이 있으면, 그거 돌아가면서 입고, 옷 많이 가져온 사람은 다른 것과 바꿔서 입고했어요. 식당에 들어가게 되면, 밥이래도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밥을 좀 남겨다 주고 옷을 바꿔 입었어요. 밥은 주로 강냉이밥, 명절 돼야 이밥 한 끼, 점심은 국수, 저녁은 강냉이밥 줬어요. 사회가 바쁠 때, 96년도에는 강냉이죽을 줬어요. 시라지 넣고, 쌀 조금에 강냉이 가루를 풀어서 풀죽처럼 줬어요. 몇 달 정도 그랬어요."

(A12 15호 대숙리 경험자)

"무더운 여름에도 겨울옷처럼 두터운 옷을 걸치고 있었고 그 옷들은 누덕누덕 기운 넝마에 가까운 것들이다. 의복은 말이 의복이지 전혀 옷처럼 보이질 않았다. 걸레조각을 기워 입은 것처럼 누더기는 다 헤져 있었고, 한여름인데 덥지도 않은지 두툼하게 껴입고들 있었고 발에 신겨져 있는 신발은 생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아주 별난 것이었다. 수용소에 처음 들어오던 날, 관리소에선 우리에게 모포 몇 장과 인민복 한 벌씩을 나누어주었다. 꺼끌꺼끌한 촉감의 테트론으로 지은 인민복은 얼마 못 가 곧 무릎이 해지고 낡아 형편없이 되어버렸지만 변변한 동복 하나가 없는 수용소 내에서는 누더기라도 한 벌 더 있는 사람이 부자였다. 수용소의 의복 사정이 이러니 사람들은 자기가 입을 옷 문제를 해결하느라 온갖 방법을 동원하였다.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이 돌면 죽은 사람이 남기고 간 것을 도둑질하기 위해 뛰어가고, 시체를 묻으려던 사람들은 갑자기 곡괭이를 놓고 시체에 달려들어 죽은 사람이 입고 있던 누더기를 서로 벗겨서 가져갔다"

(강철환 15호 입석리 경험자)

"한여름에 쑥을 뜯어다가 그것을 그늘에 내다 말려놓았다가 겨울이 되면 그것을 마치 옷 속에 솜을 넣듯이 총총히 넣어 누빈 후 입고 다녔다. 쑥은 열기가 있는 식물로 아무리 굶주려도 쑥으로 죽을 끓여 먹으면 붓지 않고 허기를 면할 수 있다고 한다. 일을 하다가 마대를 빼내어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그러나 그것이 마대로 만든 표시가 나지 않도록 손바닥 모양으로 가위질을 해서는 그것을 다시 이어붙여 기워서 입고 다닌다. 모두가 마대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탓에 그것하나 얻기도 하늘의 별따기다."

(강철환 15호 입석리 경험자)

"신발은 우선 느릅나무를 도끼로 쪼갠 뒤 그것을 불에 잠시 대면 터져서 평평하게 된다. 그것을 밑창으로 하고 그 위에 쑥을 깔창으로 댄 뒤 칡으로 끈을 엮어 감는 것이다. 이렇게 만든 신발을 '지화족'이라고 한다. 때론 쥐를 잡아 가죽을 벗기고 물에 깨끗이 빨아서 그늘에 말린다. 비록 손바닥보다 좀 작지만 털이 있는 가죽이라서 해진 무릎에 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으나 쥐 가죽은 질기지 않아 곧 찢어진다. 그 후 쥐 가죽을 신발 깔창으로 사용하였다. 수용소의 겨울은 평균기온이 영하 20도를 맴돌고 봄가을이 짧다보니 눈도 여름이 다 되어야 녹는다. 수감자들은 옷이 워낙 없다보니 모포조각이나 버리게 된 옷가지를 찰라 얼굴과 손발에 감고 다닌다. 하지만 바람은 예리한 칼끝이 되어 살 속을 파고들기에 동상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천조각으로 싸고 또 싸도 집에 와서 풀러보면 뜨거운 물에 덴 것처럼 벌겋게 부어오르거나 발이 썩어져 나가 자르게 된다." (강철환 15호 입석리 경험자)

"수용소에서는 입쌀(흰쌀)이란 건 구경조차도 할 수가 없고 배급되는 옥수수쌀에 의존할 수밖엔 별 도리가 없다. 옥수수쌀이란 것은 말만 '쌀' 자가 붙어있지 옥수수 낟알을 굵게 빻아놓은 것으로 이곳에서는 식량으로 하루 350그램의 옥수수쌀이 배급된다. 이 옥수수쌀은 잘 익지도 않을뿐더러 웬만큼 익혀도 까끌까끌한 맛이 없어지지 않으며, 소화시키기에도 아주 힘이 든다. 수용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십중팔구 이 옥쌀밥을 먹고 설사병을 만나게 되며 지독한 설사병에 걸린 사람은 심지어 6개월씩 설사를 계속 하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고 죽게 된다." (강철환 15호 입석리 경험자)

"집은 작은 방 두 칸과 부엌 한 칸, 모두 세 칸짜리 일자식 집으로 석비례(무석돌이 섞인 흙)와 석회를 혼합해 만든 흙벽돌로 지은 토담집으로, 마치 돼지우리에 임시 지붕을 씌워 만든 것처럼 엉성하다. 방바닥과 벽은 모두 흙으로 되어 있어 사람이 움직이기만 하면 푸석푸석 흙먼지가 일어나며 방바닥에는 장판 대신 피나무 껍질로 엮은 다다미가 깔려 있었다. 나무판자로 만든 천장은 모두 썩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는데, 그마나 군데군데 구멍이 뚫어져 있었다. 그리고 두 방 사이에 조명이 흐린 전구가 하나 달려 있었는데 집 안의 전기시설이라고는 그것 하나뿐이다. 부엌도 재래식으로 가마솥을 걸 수 있도록 흙으로 부뚜막을 대강 만들어 놓은 것이 전부이다." (강철환 15호 입석리 경험자)

"원래 굴진공이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식량공급량이 하루 백미 900g이나 입쌀은 한 번도 내 준적이 없고 순 통강냉이만 내줬으며 그것도 정량을 주는 것이 아니라 500g 되나마다 할 정도로 주어 결국 하루 두 끼만 먹으면서 지하막장에서 일을 하였어요. 강냉이밥을 해먹자고 강냉이로 쌀을 내고 나면 눈깔(강냉이 눈), 껍데기 등 찌꺼기가 많이 나갔어요." (이명옥 18호 경험자)

18 강제노동의 목적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의 강제노동은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는 근본적인 목적인 정치범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과 북한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 외에 수용소의 생산력을 증대시켜 자체적인 수요는 물론이고 외부의 물자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9 노동의 양과 강도

정치범수용소의 노동강도는 일반사회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탄광의 경우 1일 3교대, 일반 공장 2교대, 그리고 농장 등은 1일 12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교대 3교대의 경우에도 교대 전후시간에 공동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은 1일 평균 10시간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일 노동시간 중 휴식은 30~60분 정도의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1일 2회 정도 30분 이내이며, 자신의 작업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귀가할 수 없고 추가 작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월간 휴일은 대부분 월 1회였으며, 부분적으로 일요일에 휴무를 한다는 증언도 있었다. 연 간 휴무일은 설날과 김일성부자 생일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노동강도는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어린이와 노인들에게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인민학교 시절에도 오전 학습 후 오후시간에는 각종 노동에 참여해야 하고, 고등중학교의 경우 학교편제는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성인과 큰 차이 없는 노동에 전일 참여하게 된다.

" '과제' 를 수행해야 하니까, 못하는 사람 있으면 죄수끼리 다퉈요. 생산을 많이 해야 하니까, 과제를 과도하게 줘요. 그러니까 밭에 풀이 없고, 돌도 없고, 정말 깨끗해요. 퇴비도 많고, 수확량도 많아요. 일하는 것이 모두 질서 있어요. 착착착 맞고, 달구지 하나만 봐도 잘 만들어요. 일을 제시간에 못하면 연장시켜서 연대로 벌을 받으니까, 서로들 달궈요. 탄광은 8시간 3교대로 해요. 야외작업을 하는 경우는 하루 10시간 일을 시켜요. 농장은 하루 12시간 일을 해요.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을 해요. 여름에는 새벽에 일을 시작하고 아침을 나중에 먹고, 점심은 1시간 주는데, 집에 못갈 것 같으면 알아서 곽밥을 싸와요."

"1년 동안 놀리지를 않아요. 가을되면 도토리 따러 동원하고, 충성의 송이버섯 따는데 동원하고, 농한기에는 화목해야 하고, 퇴비를 해야 하죠, 또 고사리 캐기에도 동원되고, 다 일을 잘해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 관리소 생활이에요. 하루하루를 노동의 고통으로 살아가는 지옥과 같죠.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죽지 않기 위해 고분고분하며 살고, 속으로는 통일을 열망하고, 열심히 일해도 나간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편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그래요."

(A08 13호 경험자)

"관리소 사람들은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바로 5시에 출근한다. 일하러 가면 6시정도 되는데 일의 강도는 성한(건강한) 사람이나 아이나 늙은이나 차이가 없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일을 못한다고 매를 맞으며 일을 해야 하고, 어린 아이들은 일을 똑바로 배워야 한다면 매를 맞아야 하는 것이 관리소 안의 일반화된 현상이다. 졸업 후 갱 배치 받은 아이들은 자기가 속한 작업반에서 어른들이 하는 일만큼 따라 해야 한다. 일을 못하면 어린 여자 아이들도 매를 맞아야 한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작업반장이 사정없이 때리 기 때문에 매 맞는 것이 무서워서 죽을힘을 다해 일을 하는 것이다. 작업반장 또한 자기 작업반에 맡겨

진 과제를 못하면 담당 보위지도원 앞에서 매를 맞거나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작업반원들을 때려가면서 일을 시키는 것이다."

"탄광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다. 1개 작업반에 6~7명이 배치되어 있고, 그 중 여자가 4명, 남자가 3명 정도다. 남자들은 주로 채탄을 하고, 굴진은 3명이 1반, 채탄은 6명이 1반으로 구성된다. 탄광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모두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남자들은 결혼을 한 사람도 있다."

"건설현장 우리와 함께 일하던 인부는 전체 5,000명 정도 되고, 건설현장 인부는 기본적으로 4,5호 골안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학생들은 보조지원을 나갔다. 발전소 댐 건설은 매우 방대한 작업으로, 깊고 넓은 대동강 물을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막아야 했기 때문에 한 달에 7~8명이 죽어나갔다. 보통 하루에 12시간씩 일했는데, 아침 8시~저녁 8시, 저녁 8시 ~다음 날 아침 8시 2교대로 나누어 작업을 계속하였다. 대동강에서 추운 겨울에, 대부분이 장갑을 끼지 못하고 맨손으로 돌을 나르거나 찬 강물에 들어가 일을 하였다. 찬 강물에서 견디기가 힘들었으나, 일을 잘 못하면 밥은 굶기 때문에, 오들 오들 떨며 바지에 오줌을 싸면서 일을 해야 했다. 철근을 나를 때에는 손이 철근에 얼어붙기도 했다." (신동혁 14호 개천 경험자)

"일이 진짜 힘듭니다. 풀베기때가 제일 힘든데, 7, 8월 그때 사람들이 제일 허약이 많이 와요. 정량이 하루에 700kg을 베서 메고 강냉이밭까지 날라야 합니다. 나무끌기가 힘들고, 한 시간 두 시간 산에 올라가서 통나무를 찍어서 두 세 시간 탈곡장까지 끌고 내려옵니다. 봄에 강냉이 파종할 때 힘들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허리 펴지 못하고 굽혀서 일해야 해요. 휴식이란 건 오전에 한번 10분 휴식하고, 오후에도 10분 한번 휴식하니까 일이 많이 힘들어요. 휴식도 맘대로 못하고, 선생들이 따라다니고 감시합니다." (A04 15호 서림천 경험자)

"요덕에서 가장 힘든 것은 배고픈 것과 그런데도 일을 쎄게 하는 것이었다. 너무 고될 땐 산 꼭대기에서 너무 힘들어 서로 붙잡고 울 때가 많았다. 한번은 풀베기에 풀독이 올라서 고생했는데, 풀독으로 눈이 붙어도 일을 시켰다. 그때 건설일 하다가(돈사, 양수장 등), 돌지게를 나

르다 부상을 당해 못 움직였는데, 그런데도 부업소대(앓는 사람들을 배속시킴)로 보내서 새끼 꼬는 일을 시켰다. 그때 눈감고 서럽게 울었다. 거기서는 죽어도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했다."

(A06 15호 서림천 경험자)

"한번은 우리 소대에서 달구지 소대가 불나서 그것을 껐는데 잘못 꺼서 다시 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프로 나무 채벌했어요. 하루에 나무 3개씩 개인당 했어요. 발전소 있는데 개울이 있어요. 거기서 발전소 사람들하고 물 많이 내려 보내게 해서 물로 나무를 끌고 오고 그래서 겨우 끌고 왔어요."

(A10 15호 대숙리 경험자)

"일을 잘 안하면 밥을 적게 준다든가 하는 것을 몇 번 했어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대체로 일을 열심히 했어요. 도급제로 일을 시키다보니 경쟁심도 있고 하니까, 소대 집체적으로 압력을 주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A12 15호 대숙리 경험자)

"생활을 잘하려면 어쨌든 나가는 걸 잘 나가야 해요(출석), 그리고 그 날 과제를 다 해야 해요, 그거 다 하자면 힘들잖아요, 일의 강도는 사회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먹지 못하니까 능력을 못 발휘하죠, 먹지 못하는 건 사회에서는 질이 다르죠, 돈이 있으면 사먹으면 되니까 다르죠."

(A05 15호 입석리 경험자)

"입석리에서 교대로 12시간씩 건조로에서 일을 했다. 밤 새워 교대로 일했다. 매일 할당량이 있어 죽기 살기로 뛰어다녀야 한다. 물도 져 날라야 하는데 게다가 물이 작업장 부근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용흥강물을 길어 와야 했다. 일이 힘든 것은 말한 나위도 없었다. 매일 중노동을 한 후 십리 길을 되짚어 집에 돌아왔다. 작업 목표량을 못해내면 용평리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 허리에 새끼나 칡으로 동여매고 몇 겹이나 기운 지하족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새끼로 둘러 감고 풀을 벤다. 시커멓게 타들어간 얼굴로 비타민 결핍증에 걸려 쓰러지는 것을 보면 인간의 목숨은 숫제 쓰레기였다."

(김영술 15호 입석, 용평리 경험자)

강철환은 자신의 수기에서 요덕 수용소에서 자신이 담당했던 노동의 종류를 매우 세부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끼풀 확보사업이다. 월동준비의 첫 단계인 토끼풀 확보사업이란 늦가을부터 겨울철 사이에 토끼에게 먹일 먹이를 준비하는 것이다. 농장 밭이나 산을 헤매며 마른 칡과 시래기들을 주워 와야 했으며 주워온 시래기를 1미터 길이로 엮어야 한다. 한 사람이 하루에 채취해야 하는 토끼풀 정량은 20킬로그램으로 학생들은 저마다 산과 밭으로 다니며 칡과 시래기를 확보해야 한다. 서리 내린 땅을 파헤치고 칡뿌리를 캐내다 보면 손톱이 닳아서 아예 없는 아이들도 있었다."

"둘째, 땔나무 채취사업이다. 땔나무 채취사업은 병풍산 골짜기와 학교 뒷산에서 겨우내 땔 땔나무를 해오는 일로 어린 나이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하기란 죽기보다 어려운 일이다. 학생들은 나무를 도끼로 찍어 쓰러뜨리는 조, 쓰러진 나무를 톱으로 토막내기 위해 베어내는 조, 나무토막을 산 밑까지 끌어내는 조, 그리고 산 밑에 있는 나무를 어깨에 메고 3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학교까지 운반하는 조로 인원을 나누어 일을 했다. 제일 힘이 많이 드는 나무를 찍어내는 일부터 산 밑으로 끌어내는 일까지는 중학교 5학년 학생들이 맡아 하였고 그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나무를 학교까지 운반하는 일에 매달렸다. 인민학교 4학년 학생들이 메고 운반하여야 하는 나무의 무게는 대략 20내지 30킬로그램 정도로 이것을 거의 10리에 가까운 3킬로 미터의 거리를 운반하는 것이다."

"셋째, 토끼사 증축이다. 전국적으로 실시된 '꼬마 외화벌이 7개년 계획' 의 일환으로 토끼를 사육하고 있었다. 토끼고기는 보위원들의 식용으로 쓰이고, 그 털은 중앙으로 보내졌다. 교장이나 교원들이 당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것보다 이러한 외화벌이 사업을 잘 해야만 하였기에 학교 측에서는 중앙에서 내려온 목표량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수업은 시키지 않고 우선적으로 작업장으로 내몰고 토끼사를 증축하기로 하였다. 학교 뒷산에 굴을 파고 진흙으로 미장하여 토끼사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열두 명이 삽으로 진흙을 파내고 나머지 인원은 진흙을 양동이나 가마니에 담아 토끼사까지 운반하였다. 진흙을 파내는 곳은 4~5미터 높이의 진흙벽으로 진흙은 그다지 찰진 것이 아니어서 파내기에는 그

리 힘들지 않았지만, 파들어 갈수록 곧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이틀간 계속 퍼내니 자연히 2~3미터 깊이의 굴이 만들어졌으나 갑자기 한쪽에서 흙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 여섯 명의 학생들이 진흙더미에 쌓이게 되었다. 50센티미터쯤 파 내려가자 세 명의 학생이 나왔고 1미터 정도 더 파 내려가자 나머지 세 명도 모습은 드러냈지만 흙을 뒤집어 쓴 이들의 얼굴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교원들은 곧 이 아이들을 가마니로 덮고 아무도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죽게 되었다."

"넷째, 농촌지원 전투이다. '농촌지원전투' 에선 '강냉이 영양단지 만들기' 와 '강냉이 이식전투' 그리고 '모내기' 가 있다. 북조선이 자랑하는 것이 바로 김일성이 개발한 '주체농법' 이라는 '영양단지' 로 부식토와 흙을 섞어서 반죽을 하여 원통형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 영양단지 가운데에 구멍을 찍고 그 구멍 속에 강냉이 씨를 넣은 후 거름이 많은 곳에서 자란 강냉이가 영양단지 속에서 싹이 트고 떡잎이 세 장 정도 나오면 그것을 하나하나 밭에다 옮겨 심는 것이 바로 '강냉이 이식전투' 이다. 일단 밭을 몽땅 괭이로 뒤집어 일구고 싹이 난 영양단지를 하나하나 옮겨심기 위해 정확히 22센티미터의 간격을 맞추어 구멍을 파는데 구멍의 깊이는 10센티미터이며 비료를 깔고 영양단지를 넣고 흙을 다진 다음 물을 준다. 농촌지원 전투에는 애, 어른 할 것 없이 수용소 내 전 인원이 동원되며, 학생에게 주어진 정량은 하루 50평, 어른들은 140평 이상을 마쳐야 하루 분 강냉이 급식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충성의 사금캐기 운동이다. 김일성 생일은 4월 15일로 그 두 달 전부터 생일 선물을 준비한다. 요덕군의 강 상류에는 금을 캐다가 폐광을 시킨 금광이 있다. 그래서인지 강가에 사금이 있으며 사금을 캐어 김일성 생일에 충성의 표시로 바친다는 것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금을 캐는데, 6명이 한 조가 되어 하루에 0.5그램씩 캐는 것이 책임량이다."

"여섯째, 외화벌이-세신(細辛)캐기이다. 세신은 해발 1,500미터 이상의 산에서만 나는 귀한 풀로 그 뿌리가 은단 등 향료의 주원료로 쓰인다. 주로 일본 등 외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값이 꽤 비싸다고 들었다. 하루의 책임량은 5킬로그램으로 30명을 3개 조로 나뉘어 작업에 들어간다. 보름동안 산 속에서 먹고 자며 세신을 캐고 세신뿌리를 모두 등에 짊어지고 산을 내려 온다."

"일곱째, 밭매기다. 인민학교 때는 하루에 밭을 40평씩 맸는데 중학교에 올라가니 60평으로 늘게 되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작업의 책임량만을 완수해야 하며, 40평을 매는 것도 힘들었으나 60평은 힘든 것은 물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게 되었다. 책임량을 다하지 못하면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집체적(단체적)으로 선전실에서 자게하고 새벽부터 일하러 나가게 하였다."

"여덟째, 딸기밭에 인분주기다. 산기슭 한가운데 있는 딸기밭에 인분을 주는 것으로 인분 통을 들고 다니며 변소마다 뒤져서 퍼낸 인분을 산까지 운반한 후 인분을 조금씩 퍼서 딸기 한 포기마다 간격을 두고 밑거름을 주는 것이다. 이때 만약 냄새가 싫다고 얼굴을 찡그리거나 일을 태만히 하면 변소 청소를 시킨다. 변소청소는 변소바닥을 손바닥으로 닦아내는 것이다. 혹 감독의 미움을 받으면 인분을 손으로 퍼서 딸기밭에 주도록 시킨다. 인분을 손으로 주게 되면 손은 시퍼렇게 똥독이 올라 퉁퉁 부어오르게 된다. 이때 딸기 잎에 묻으면 몽둥이나 가죽 회초리로 사정없이 맞게 된다."

(강철환 15호 입석리 경험자)

"탄광 일은 3교대제였다. 낮교대는 아침 8시에 시작하여 오후 4시까지, 중번교대는 오후 4시부터 24시까지, 령시교대는 0시부터 아침 8시까지로 이 세교대가 치차처럼 맞물려 하루도 쉼 없이 갱일을 하는데 실제 매 교대가 갱에 있는 시간은 그 이상이다. 실제 낮교대는 오후 4시까지지만 보통 갱에 있어야 하는 시간은 오후 6시까지이며 중번교대는 밤 1시까지 남아있어야 한다. 교대는 매주 마다 바뀌는데 낮교대가 끝나면 바로 령시교대에 맞물려 들아가야 한다. 이때는 4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갱일을 해야하므로 "꼽배기" 라고 부르는 제일 피곤한 교대이다. 탄 캐는 일은 쉽지 않다. 8시간 일하고도 채탄계획량을 못하면 수집탄을 해야한다. 수집탄은 양동이를 들고나가서 광차 레일 로반에 흘린 석탄을 긁어 담아 2톤짜리 광차 하나를 채우라는 소리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집탄을 너무나 긁고 또 긁어 로반 바닥이 허옇게 드러났는데도 없는 수집탄을 안한다고 때리고 지랄부린다. 18호 관리소는 로동환경이 매우 열악하기에 노동재해도 가지가지다. 불량한 전력케이블에 붙어 죽고, 막장으로 타고 내려가던 호스(갱내 운반기구의 이름)가 일주(逸走)하는 바람에 죽고, 굴이 무너져 죽기도 하여 시체를 많이 다루게 된다."

(이명오 18호 경험자)

"탄광에서는 아침 7시 30분에 인계받아서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고, 교대가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교대가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총 3교대로 일한단 말입니다. 계속 교대로 돌아가면서 일했단 말입니다. 탄광에서 일할 때는 죽는 사람이 많아요. 다쳐서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일 끝나고 나오면 하루 살았구나 싶어요. 관리소 안에서의 강제노동은 정말 힘들어요. 뼈 빠지게 일해야 해요. 탄광에서 햇볕 볼 시간 없으니 얼굴도 하얗고 진짜 힘들어요. 아픈 사람들도 진짜 많고 그러다 죽어야해요."

(A09 18호 경험자)

" '대건설' 대상은 정치범들을 핵기지, 위험한 갱도공사, 비밀갱도, 3국 실험용으로 데려가는 것을 말한다. "대건설에 나가서 일만 잘하면 출소시켜준다 '고 소문을 내고 끌고 갔다. 그러나 돌아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한진덕의 아버지도 대건설 대상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정치범들은 작업 시 항상 밖에서 찬밥을 먹어야한다. 농업건설반의 사을초소를 허물고 다시 지을 때였다. 농업건설반의 정치범 100명 가량이 동원되어 초소를 허물 때 지붕 트러스를 내리다가 담당 보위원과 경비대가 빨리하라고 들볶아대는 바람에 기둥을 잘못 내려 그 밑에서 일하던 20여명의 남녀 정치범이 지붕이 내려 앉으면서 깔려 죽었다. 시체를 실은 차를 타고 정치범 병원인 낙생병원으로 갔다.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가족들에게 죽었다 통보하고 산에다 공동 매장시켜 버리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6시경 낙생지구 야산에 공동 매장되었다."

(안명철 11, 13, 22호 경험자)

20 학교운영 목적과 학교현황

정치범수용소 내 학교의 운영목적은 근본적으로 수용소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없는 완전통제구역은 수용소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기초학습만을 시킬 뿐 정치사상 학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범수용소 내 학교는 수용소를 관리하는 국가보위부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다.

21 학교생활 및 노력동원

정치범수용소 내 학생들은 자신의 생활구역 내에 학교가 있을 경우 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학교생활은 오전 학습, 오후 노동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며, 고등중학교의 경우 완전통제구역은 학교 편제만 있을 뿐 실제적인 학습은 없이 노동만을 하고 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학교의 실제 모습과 운영되는 현실을 증언한 세부적 자료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민학교 4년, 중학교 6년 다 졸업시켜요. 졸업하면 무조건 일 해야 하고 학교 다닐때에도 학교에서 일을 조직하죠. 놀리지 않아요. 나무해오기, 토끼풀 하기 교사들이 다 보위원입니다. 사회하고 달라요. 사복 입고, 총은 차지 않고 있지만, 책상에는 다 있어요. 한 학교가 한 2~300명 정도 됐어요. 제일 큰 풍천이 그래요. 다른데도 일이백명은 됐을거예요. 작은 학급은 10명, 많은 학급은 3~40명이에요."

"학교가 있어요. 동포, 풍천, 풍계리에 학교가 하나씩 있어요. 거리가 머니까, 중학교 따로 없고, 인민학교랑 합해서 하나 있어요. 배워야 일을 시킬 수 있다 그거예요. 죄인들 학교는 교재가 달라요. 정치부에서 출간한 도서가 있어요. 국어, 산수, 조선역사, 지리 다 있었어요. 근데, 혁명력사 과목은 없었어요. 앞으로 밖으로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일을 시키려면 글을 알아야

하고, 수학을 알아야 하니까 배워주죠." (A08 13호 경험자)

"등하교시 마을별로 아이들이 조별로 다닌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 보통 5~6시 정도에 도착한다. 1호골, 2호골, 3호골 안 아이들은 학교에 다닐 수 있지만, 4호골, 5호골 안에 있는 아이들은 골 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한다. 14호 관리소에는 인민학교 1개, 중학교 1개만 있었다. 인민학교의 경우 한 반에 30~40명 정도 있었고, 학년별로 3~4개 반이 있었다. 한 학년에 100여명 정도 학생이 있었고, 5학년까지 전체 학년을 모두 합하면 500~600여명 정도 되었다. 관리소 내에는 유치원이 없고 인민학교는 5학년까지 있었다.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학생까지 합하면 1,000명 이상의 학생이 관리소 내에 있었다. 관리소의 학생 수를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관리소에 수용된 인원을 최고 10만 명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전체 수감자가 5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 추정한다. 관리소에는 유치원 높은 반이 없기 때문에 7세에 바로 인민학교로 입학한다."

"관리소 사람들은 학교를 '고등중학교' 라고 불렀고, 다른 공식적인 학교 이름은 없었다. 일반적으로 관리소 내 수감자들이 '고등중학교' 라고 불러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인민학교는 1학년에서 5학년까지 5년 과정이고, 고등중학교는 6년 과정이어서 전체 11학년을 공부하게 된다. 모든 학년을 마치고 졸업은 17세에 하게 되는데, 학년이 올라가도 학급(반)이 바뀌지 않아서 학급 친구들과 11년을 함께 학교를 다닌다. 관리소 학교의 학생 수는 인민학교 600~700명 정도 되었고, 고등중학교는 700여명 정도 되었다."

"인민학교에는 학급당 담임선생님 한 명이 배치되어 있고, 고등중학교에 올라가면 한 학년에 담임선생님 한 명이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고등중학교 과정에는 담임선생님이 전체 학년을 통틀어 6명이 있다. 고등중학교 담임선생은 가르치는 수업은 없고, 작업을 나가고 들어올 때 인솔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담임선생님은 보위부원이기 때문에 다른 보위원들과 똑같이 권총을 찬 채 제복차림으로 수업을 한다. 담임선생들은 모두 남자 선생이었으며, 자신의 이름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출석은 아침 첫 시간, 오후 첫 시간에 두 번 부른다. 아무리 많이 아프더라도 결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여섯 명의 학생들이 가서 그 친구를 데

려오고, 지각도 거의 하지 않는다."

"인민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국어, 수학, 체육 세 과목이 전부다. 수용소 내 학교의 수업시간은 일반 인민학교보다 길지만, 김일성과 관련된 것이나 당 혁명, 북한 역사, 그리고 북한의 지리와 과학, 음악, 미술 등에 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 인민학교 때는 교복을 입었지만 고등중학교에서는 작업복을 입는다. 작업복은 6개월에 한 번씩 새로 받았으며, 두껍고 질이 괜찮은 편이지만 두세 달 정도 입으면 헤지기 시작한다. 학교에서는 어떤 교과서도 제공하지 않고, 한 학기에 노트 한 권, 연필 10자루 정도를 나눠주며, 지우개는 주지 않았다. 학교에서 나누어 주는 노트와 연필은 모두 관리소에서 자체 생산한 것인데, 흑심이 약해서 글자 한 자 쓸 때마다 부러져서 하루에 한 자루를 갖고서도 모자랄 지경이다. 그런데도 수업시간에 연필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선생님에게 매를 맞기 때문에 아이들은 나무를 태우고 남은 숯을 깎아서 연필 대신 사용한다." (신동혁 14호 개천 경험자)

"당시 학교는 없었어요. 아이들은 없었구요." (A10 15호 대숙리 경험자)

"학생 수는 1반에 40명~50명 정도 되는데 한 학년이에요. 인민학교 4년이니까...160명 정도되요. 나는 학교에 다녔어요. 가도 통제 속에서 갔어요. 방학이란 것도 모르고, 학교엘 가도 조직에 얽매어 자유를 안 줬어요. 아이들도 노동으로 단련을 시켰어요. 공부란 거는 오전에만 하고, 오후에는 노동을..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든, 어데 가서 뭘 하든, 노동으로 단련했어요. 인민학교랑 중학교가 7작업반에 같이 붙어 있었어요. 5반부터 9반까지 아이들이 다 10리 20리를 걸어서 다녔어요. 한 개 작업반에 한 50명씩 학교를 다녔어요. 학년마다 다 한 개 반씩 있었어요. 아침에 작업반에 1학년부터 다 모여서 출석을 부르고 줄서서 학교까지 가요. 그리고 자기 학년으로 흩어 들어가는 거예요. 저녁에 5시에 운동장에 모여서 '헤쳐' 하면 다 자기 반으로 찾아가서 모여요. 그래서 책임자가 자기 작업반까지 데려가요. 제일 높은 학년이 책임자 해요."

"과목은 사회하고 똑같았어요. 수학, 영어, 도덕, 혁명력사, 세계력사, 지리, 물리, 미술, 음악, 체육도 다 있었어요. 시험도 보고요. 성적대로 졸업을 시키는 거예요. 학교는 세시에 끝나고 그러면 5시까지 일을 시켰어요. 우리한테 고달픈 거는 오후에 노동을 시키는 거였어요.

겨울에는 방학이라도 놀리지도 않고 하루 종일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매주 토요일에 공부 끝나고 오후에 생활총화를 했어요. 소년단 생활총화예요. 어른들 같은 거는 일 다 끝나고 토요일 밤에 회의를 했어요. 그 안에서 당증 안 뺏긴 사람은 당 생활총화를 했어요. 우리 엄마도 당증을 안 뺏겼어요. 엄마는 죄인이 아니니까 당증을 갖고 들어왔어요." (A11 15호 임성희 경험자)

"수용소 안에 있는 인민학교(현 소학교)는 학제가 사회와 같은 4학년이었으나 고등중학교(현 중학교)는 5년제이다(사회에서는 6년제임). 9월 1일 신학기가 가까워지자 인민학교의 학생감독이라는 남자가 집으로 찾아왔는데 학교에서 나왔다면 틀림없이 선생일 텐데, 그는 여느 보위원과 똑같이 허리에 권총을 차고 있었다. 그는 영화에서 본 왜놈 순사처럼 한 발을 문지방에 걸쳐놓고 팔꿈치를 무릎에 대어 거드름을 있는 대로 피우며 말하였다. 아침 조회가 시작되면 땅딸막한 체격의 50대 교장이 교단 위로 올라가 조회를 시작하였다. "녀희들은 죄인의 자식들이다. 녀희들의 부모들은 우리의 당과 조국을 배신하고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죄인의 자식인 녀희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셨다." , "만일 규율을 위반하거나 선생의 요구의 순응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처벌하갔다." ...여기가 학교라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학교가 아니라 무슨 형무소에 갇혀 있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아침 정상수업은 8시 30분부터 시작한다. 인민학교에서는 '혁명역사' 과목만 제외하고는 모든 과목을 담임선생님이 직접 가르치고 있다. 혁명역사란 김일성의 항일투쟁 시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소홀이 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기에 이 시간 만큼은 평양의 인민학교와 똑같이 가르쳤다. 그러나 다른 과목은 담임교원이 가르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교원용 교수안을 가지고 와서는 학생을 시켜 칠판에 베끼게 하고 학생들에게 모두 암송하라고 시키는 것이 전부다. 모든 수업은 그야말로 공포분위기 속에서 침도 못 삼길 만큼 긴장된 채 진행되며, 넷째시간부터는 각 조별로 오후에 할 일에 대한 과제가 주어지고 그 일을 해야 한다. 1조는 토끼풀을 해오고, 2조는 박하 밭에 인분을 주고, 3조는 학교 뒷산에 돌을 쌓는 조에 속해 그 할당량을 완수해야 하는 그런 방식이다."

"9월에 중학교에 진학하였으나, 수용소에서 진학이 갖는 의미는 공부를 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민학교 시절보다 더 고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어지 정량도 훨씬 더 많고 비록 형식적이긴 하지만 입학식이라는 것을 한다. 교장은 인민학교 교장이 중학교 교장을 겸임한다. 학교에서 상급반은 김정일 연구판을 만들어 놓고 김정일이 한 말들을 연구하고 암송하기도 하며,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어린 시절 따라 배우자' 라고 하며, 김정일의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지략과 영민함, 투철했던 혁명정신을 따라 배우는 수업을 한다. 또 어느 때는 '충성의 노래모임' 이라는 것을 만들어 김정일의 혁명역사, 덕성, 실기를 노래와 시에 담아 예술공연을 하기도 한다."

"1983년 7월 23일 수용소 학교를 졸업하였다. 그 동안 배운 것은 김일성, 김정일의 혁명역사와 육체노동과 보위원들의 눈치보는 법을 터득하였다. 입학할 당시 같은 학년은 100명 정도였으나 도중에 죽은 아이들은 15명, 용평 완전통제구역으로 끌려간 아이들이 20여명, 아주 적지만 사회로 나간 아이들 몇 명을 빼니 처음부터 같이 학교를 다닌 아이들은 몇 명 되지 않았다."

(강철환 15호 입석리 경험자)

"입석리에 있을 때 수용소에도 학교가 있지만 정식 교육을 하는 곳은 결코 아니었다. 보위원들의 자식이 선생이 되며 학생들은 단지 토끼 사육공에 불과했다. 학생들이 토끼풀 과제 하루 분량을 다 못 채우면 벌을 세우고 집에도 안 보냈다."

(김영순 15호 입석, 용평리 경험자)

"관리소의 통제구역 안에는 중학교와 인민학교, 유치원까지 다 있다. 죄 없이 끌려온 어린아이들까지도 붙잡아 매기 위해서이며 교원은 다 대내 사람들이다. 단지 탁아소는 대내용 밖에 없으며 이주민과 해제도 탁아소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이명옥 18호 경험자)

"관리소 안에서도 학교는 대다수 가는데 학교에서는 내라고 하는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들이 내라

는 것을 안내면 아이들을 때리고 그래서 학교 못가는게 많고, 학용품을 다 개인이 부담해야해요, 연필이랑 공책도 다 개인이 부담해요, 교과서도 부족해서 10과목이면 3~4과목 정도 받아요, 그것도 부모가 선생한테 관심이 있어서 뇌물을 고이고 하면 학생한테 관심을 갖고 교과서도 많이 주고, 부모가 그런 것이 없으면 학생한테 주는 것도 적어요."

22 공개처형 및 비밀처형 실태

북한의 모든 정치범수용소에서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에 대한 증언이 나왔다. 이것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이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용소에서의 처형은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을 구분하지 않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개처형은 소수의 관계자들만이 참여하여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격자와 증언자가 매우 적을 수밖에 없으나, 상당수의 증언자가 비밀처형을 목격하거나 인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비밀처형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비밀처형은 수용소 내 보위부원과 경비대와 관계된 사건의 경우 수감자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대상자를 은밀하게 체포하여 비밀처형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용소 수감자 여성과 보위부 및 경비대 남성사이에 성적접촉으로 임신한 경우 여성 수감자는 비밀처형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부분의 비밀처형은 수감자들에게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수용소에서 갑자기 실종된 경우 비밀처형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공개처형과 비밀처형 사례들을 증언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도주하다 잡히면 총살당하거나 공개재판을 받고 수성교화소로 갑니다, 그런데 총살은 잘 안 해요, 그건 처형을 많이 하면, 다른 죄인들에게 바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던 동안 공개총살을 1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대체로 도주하다 잡힌 거예요, 다른 거는 총살은 안 해요, 기계파손을 고

의적으로 했다는 것으로, 파괴분자로 해서 공개재판을 해서 처단한 적이 있어요. 1969년도에 있었는데, 청진 제강소에 있다가 온 사람이었어요. 공개총살보다 몰래 데려가 없애버려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도주를 자주 시도한 사람이 대상이 되고, 죄수들끼리 서로 말을 잘못한 것, 공개처형하면 죄수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니까 몰래 철조망 너머 함정에 집어넣어버려요."

(A08 13호 경험자)

"어머니와 형이 도주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자신과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공개처형을 당했다."

(신동혁 14호 개천 경험자)

"도망칠 곳이 없다. 남자 둘이 총살됐는데, 도망을 가다가 도망갈 곳이 없어 둘 다 초소에 걸려 금방 잡혀왔다고 했다."

(A06 15호 서림천 경험자)

"도둑질은 과오에 들어가요. 독신자들은 도둑질이 많아요. 그거는 처벌 받겠죠. 어떤 처벌인지 몰라요. 몰래 없어지지는 않는데 구류장에 가는 것도 크게 없는데 그건 종합적으로 처벌해요. 1반부터 10반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구류장 보내고 총살하고 그래요. 도둑질하면 총살해요. 2번 총살을 봤어요. 1번은 도둑질한 사람이고 2번째도 방향은 같아요. 모두 다 독신이에요. 남자들이 죽었어요."

(A05 15호 입석리 경험자)

"만약에 작업반에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총 출동이예요. 그 사람 찾을 때까지 전부가 일을 안 하고 찾아요. 그래서 도망자가 나오면 다 7반으로 모이게 해서 총살하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 그 안에 감옥에 가둬 넣었어요. 그래서 진짜 잘못했다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돼서 총살한다." 하고 총살했어요. 다들 말조심을 해요. 몰래 끌어가서 죽이는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일 때는 그대로 보여줘서 우리에게 겁을 줘요."

(A11 15호 입석리 경험자)

"비밀처형은 목격하지 못했으며, 공개처형은 여러 번 목격했다. 당일 오전 11시쯤 입석리 2작업반 근처 강변에 있는 사형 집행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 앞에서 군복차림의 관리

소장이 종이를 펴들고 뭔가를 열심히 읽었으며, 소장 뒤편에는 사람 키만한 말뚝이 세 개 박혀 있었다. 소장의 말이 끝나자 세 남자가 보위원들에 의해서 끌려나왔다. 보위원 둘이 양옆에서 한 사람씩 부축하고 있었으나, 제 발로 걷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들 마치 죽은 사람처럼 축 늘어져 질질 끌려왔다. 얼마나 얻어맞고 시달렸는지 이미 반죽음을 당한 것 같아 보였다. 입석천 뚝 밑에 박아놓은 나무기둥에 탈주자들을 세우고 밧줄로 묶었다. 탈주자들은 지레 겁을 먹고 실성을 했는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대로 몸을 내맡기고 있었다. 곧이어 "사격준비!" 하는 지휘관의 구령이 떨어졌다. "쏴", "탕-탕-탕". 마지막 총소리가 나자 세 명의 탈주자는 나무토막처럼 그 앞에 깔려 있던 거적 위로 쓰러졌다. "민족반역자 ○○○, △△△, □□□를 인민의 이름으로 처형했습니다." 보고가 끝나자 보위원과 경비병들이 재빨리 시신을 거적에 말아 빈 트럭에 던져 올린 다음 어디론가 가버렸다."

"1983년 늦여름 선돌바위 부근 강변 사형장에서 공개처형이 있었다. 16세 이상 죄인은 하나도 빠짐없이 누구나 다 참석해야 했다. 수용소에서는 해마다 열댓 명 정도의 탈주자가 생기는데 이들은 주로 수용소에 갓 들어온 젊은 독신자들로 젊은 혈기에 모험을 시도하는 것이다. 선돌바위 부근 강변은 10반 부락에서 멀리 떨어진 5반 부락에 위치하여 4~5시간을 꼬박 걸어야 도착하는 거리다. 리춘원을 향하여 총성이 세 번 반복되었고 보위원 한 명이 생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죽은 이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 보위원들은 헌 마대로 넘어진 시체를 대충 감더니 트럭에 싣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1985년 8월 현역 군인으로 군대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자 2명이 남조선 노래를 부르며 남조선에 대한 환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발각되어 수용소로 끌려오게 되었다. 군대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자들이라 체격이 튼튼하고 싸움을 아주 잘 하였다. 이들은 치밀한 사전계획을 세우고 수용소를 빠져나가 북조선을 빠져나갈 계획까지 세웠으나 결국 붙잡히게 되었다. 해방절인 8월 15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공화국 형법 ○○조 ○항에 의해 교수형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처형은 '총알이 아깝다' 는 것과 '시각적 효과를 높인다' 는 등의 이유로 교수형에 처한 것이다. 또한 모든 수용자들에게 교수대 앞을 통과하여 각기 마을로 돌아가게 하였는데 이때 돌을 하나씩 주워서 죽은 놈들에게 던지게 했다."

(강철환 15호 입석리 경험자)

"1년 동안 5번 정도 공개처형을 직접 목격했어요. 전부다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왜 총살당하는지는 말을 해줘요. 기억나는 거는 제도를 반대하고 간첩임무 수행하다가 여기 와서 개조안하고 버틴다고 하면서 죽이지요. 대체로 도주죄가 제일 많고 거의 모든 총살은 도주죄입니다. 우리 대숙리가 제일 경한데라고 하더만요. 골안끼리는 1.5미터 판자로 막아놔요. 거기서도 많이 죽어요 공개처형도 많이 하고요. 1년 동안 20~30회 하는 것 같아요. 처형할 때 뒤에 나무판을 대는데 그 거 짠거는 11개 즉 11명 공개총살 했단 것이지. 매달 관을 5~6개는 짰어요. 우리소대원 하나 죽어서 묻으러 갔는데 산이 완전 돌판 이야. 약간 땅 파고 거기다 묻고 왔는데, 무덤에 나무명판 하나 세우는데 거의 없고 그냥 묻어둡니다."

(A10 15호 대숙리 경험자)

"공개처형을 하면 온 구역을 사형장에 집합시킵니다. 분주소 쪽에서 차가 2~3대 옵니다. 여기에 관리소 소장, 부소장, 분주소 과장, 정치부장, 다른 차에 구류장 계호들이 3~6명 옵니다. 첫 번에 총살할 때 3명, 2번째 6명, 여기에 신호깃발을 든 조장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각 반을 렬을 지어 앉혀 놓고 뒤에는 경비대 1개 소대쯤으로 봉쇄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봐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각 담당들도 정복을 입고 권총을 찼습니다. 어마어마하였습니다. 앞에는 책상을 놓고 연설탁을 놓았습니다. 앞에 관리소 소장, 부소장, 정치부장, 과장 등이 앉습니다. 과장이 서막을 합니다. 뒤이어 관리소 소장이 이들의 사회생활 죄와 관리소에 오게 된동기, 관리소 구역에서의 죄를 폭로하고 중앙재판소 판결 몇조 몇항에 의하여 총살한다고 하면, 이들을 나무에 미끄러매고 사격수가 "반혁명분자 한 00, 또 누구 쏴" 하면 6명의 사형수가 한사람이 3발 씩 한명한테 9발씩 쏘고, 사격수가 가서 죽었는지 확인하고, "반혁명분자 누구 완전 죽었습니다." 하고 차를 타고 가버립니다. 뒤이어 소장과 정치부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총살은 1997년 4월 28일, 총살을 선포하였을 때, 현00이 불뚝 일어서서 연단 앞으로 가더니 주먹을 올려들고 "의견이 있다" 고 "교양해서 다시 우리처럼 되게 하자" 고 말을 하는데 각 담당들과 경비대들이 에워싸고 때리고 차고 박고 하더니, 입에 자갈을 물리어 차에 끌어가 태웠습니다. 우리도 생각 못했던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영영 실종되었습니다.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내가 나온 다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나 중앙재판소 판결에 반항했으니 죽었을 것입니다."

(A12 15호 대숙리 경험자)

"26살의 청년 두 명이 수용소를 탈출하려다 잡혀서 모든 수용소 인원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처형을 실시했다. 처형은 공업대대 3작업반과 4작업반 사이 넓은 공터에서 했다. 도주는 기도만 해도 죄였다. 모가 잘못 자라도, 풀베기 계획에 미달해도, 방풍장을 잘못 쳐도, 김을 잘못 매도 끌려갔다."

(김영순 15호 입소, 용평리 경험자)

"국가보위부의 풍차(적재함에 풍막을 친 트럭)가 현지 총살을 집행할 군인들을 싣고 18호 관리소로 들이 닥친 후 제일 외진 이방골의 울타리가 높은 교양소 안에 들어선 후 형을 집행할 구역에 테두리를 치고 책상 의자만 몇 개 놓아 즉결심판장을 꾸렸다. 비록 관리소 안이긴 하지만 누굴 사형하는 일이 있다 하면 다들 나와 보고 알련만 이번과 같은 방침건 심판은 아무도 못 보게끔 아예 이방골안 교양소와 같이 으슥한 데서 집행하였다. 재판관도 없이 모두의 눈을 피해 숨어서 1호 신소자들과 그 방조자들에게 심판을 내렸다. 이때 처형된 신소자들은 고려호텔 지배인이나 봉화총국장, 19부 안전부장, 신소 카세트를 평야에 전달한 젊고 의로운 경비대 특사 등 11명 혹은 19명으로 이들에 대한 총살이 30분 동안 즉석으로 집행되었다." (이명옥 18호 경험자)

"동무 임00이 아버지가 총살됐어요, 열세 살 때쯤 돼요, 가 아버지가 기계를 다뤘는데, 그것 관련돼서 총살됐다고 들었어요, 가족들은 그거 못 보게 하더라고요, 목매달아 죽이는 것도 봤어요, 절반 다 죽어서 나왔는데, 그것도 학교 다닐 땐데 사람들 모아놓고 죽였어요, 교수형 하는 데 절반은 다 죽여서 나와서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남자였어요." (A01 18호 경험자)

"18호에 있던 남자 2~3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대동강을 건너서 14호 건너갔는데 집에 강냉이랑 강냉이 가루랑 가뜩하다고 하더란 말입니다, 대동강 물도 무릎까지 밖에 안 오고 그래서 강냉이를 채가지고 와서 먹었는데 결국 공개총살 당했단 말입니다, 함께 일하던 동무의 어머니는 1996년 2월~3월쯤에 미신을 믿었다고 하여 안전부에서 6개월 동안 취조 받은 후 공개공판장에서 총살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차 수리공이었는데 보위부 차를 수리하다가 실수로 차를 못 쓰게 만들어 보위부원들의 사업을 방해한 반동으로 몰려 총살하였습니다, 다 기억을 못하겠지만 보통 1년에 2~3번은 공개공판장에서 총살하는 일이 많습니다."

"1997년도 심화조 사건으로 관리소로 들어왔던 사람들 중 23호 관리소 안전부장, 강원도당 책임비서, 평남도당 책임비서, 개성시당 제 1비서, 국가보위부지도원, 피갑선 중산군당 책임비서, 21호 관리소 소장 이렇게 7명은 비공개로 봉창리 2반골에서 총살하였는데 우리는 2반골에 모래를 실러 갔다가 처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A09 18호 경험자)

"22호에 오니 13호와 마찬가지로 비밀처형장이 있었다. 1992년 3월에는 삽자루가 박혀있는 젊은 여자의 사체를 발견하였다. 삽자루가 박힌 여자는 92년 가을에 보위원 최철수와 부화를 해 임신을 했기 때문에 처형된 것이라고 했다. 1989년 13로 관리소의 소백력초소에서 근무를 했다. 초소에서 동쪽으로 500m 떨어진 산골짜기에 깊고 구들장이 많은 온석고지라는 특이한 산이 있었다. 원래 이곳은 비밀처형장이었는데 경비대에게는 귀신이 나온다는 공포의 산으로 불렸다. 우리는 이곳이 비밀처형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오기를 꺼려했다. 소백령초소 정문 보초 근무를 서고 있는데 온석고지 쪽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1990년대 초에 들어서자 소백령초소를 재건축한다고 했다. 한겨울에 돌을 들추어내어 시체를 꺼낸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안명철 11, 13, 22호 경험자)

23 고문 및 폭행 실태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과정과 수감기간 동안 고문과 폭행을 경험하지 않은 수감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고문과 폭행이 일상화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교 다니던 시절에 옷을 모두 벗겨진 채로 거꾸로 매단 상태에서 달아오른 숯불에 허리를 당이게 하는 고문을 받았다. 몸을 심하게 요동치니까 보위원은 숯불통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허리에 당도록 하였다. 그래도 계속해서 몸을 요동치자, 보위원은 끝이 뾰족한 갈고리로 내 배꼽 아래(사타구니)를 찍어 관통시켰다. 이는 더 이상 요동치지 못하도록 갈고리로 고정시키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고문을 받고 혼자서 독방에서 약 20일 정도를 있었다." (신동혁 14호 개천 경험자)

"평소에는 선생들이 때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따로 담화실에 불려가서는 맞는 것도 있어요. 싸움을 했다든지, 어떤 문제가 제기됐다든지, 중대장들이 가서 종종 맞습니다. 소대장들도요. 그러면 소대장들이 와서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달굽니다. 그러니까 보위원 선생들이 직접 때리지 않고, 소대장이나 중대장을 시켜서 때리는 겁니다." (A04 15호 서림천 경험자)

"일하는데 밭에 와서 나를 불러놓고, 나무로 때린 적이 있습니다. 중대장이 말 안 듣는다고 보고를 하면, 일하는데 찾아와서 심하게 때립니다. 종합반에서도 식량을 끊여먹다 들키게 되면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보위원들이 사람을 때립니다.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 역시 자유주의 맏다고 각자와 발로 여러 대를 맞고 채였습니다. 어디 가나 천대와 멸시는 따라 다닙니다." (A12 15호 대숙리 경험자)

"휴식도 없이 노동이 진행되는데 잠시 앉으면 발로 차고 개새끼라고 욕을 퍼부으며 군화로 손을 짓밟아 뭉갰다." (김영순 15호 임석, 용평리 경험자)

"작업장을 이탈해 학교 뒷산에서 추자목(楸子木) 열매를 따먹은 아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우선 두 손을 곧게 펴고 높이 들라고 지시했다. 높이 펴든 여섯 아이의 손은 추자열매로 인해 새까맣게 묻어 있었다. 박태수 교원은 손바닥을 땅에 대고 오른발을 들고 두 손바닥을 땅에 댄 채 뒷걸음질을 하게 시켰다. 손바닥에 묻은 까만 진이 지워질 때까지 운동장을 돌게 하였고 아이들 손바닥은 벗겨지고 흙에 조금씩 피가 묻어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손바닥을 다시 땅에 대게하고는 구둣발로 마구 짓이겨댔다."

"혁명화연구실에 수업을 위해 양말을 갖고 오지 않아 축구공 차듯 배 부근을 발길질하였고 군화발로 명치끝을 사정없이 가격한 후 오전 수업이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서 있도록 시켰

다, 여름 햇살에 두어 시간 견딘 아이들은 피식 쓰러져버렸다. 용평에서 온 담임교원 최성근은 나무를 패어 쌓아놓는 작업을 시키고 작업량을 검열하던 중 작업량이 적다며 배정철의 명치를 구둣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으며 몽둥이로 사정없이 내리쳤다. 교실로 끌고 온 후 "너희는 개다" 라고 외치며 개처럼 기어서 교원들 따라오라고 시켰다. 같이 있던 영수가 시킨 일을 하지 않자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영수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고 얼굴은 피범벅이 되어버렸다." (강철환 15호 임성리 경험자)

"관료 통치자들에게 대들지도 못하고 때리면 매 맞고, 빼앗아가면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싸움질하면 끌려가서 매 맞아 죽고 맙니다." (A09 18호 경험자)

"구류장에 오면 모두 삭발을 해야 하고, 처음에 무조건 무자비하게 때려 초죽음을 만든다. 4각 각자를 두 무릎 사이에 끼우고 24시간 동안 꿇어앉힌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남녀를 불문하고 죽도록 폭행한다. 매일저녁 보위과 계호원들이 정치범들을 폭행하고, 아우성치는 소리 때문에 귀가 아플 지경이었다. 폭행을 하다가 죽이는 경우도 있었다. 50세 가량의 북송교포의 일본인 처도 사망하였다. 하루 100g의 콩주먹밥과 시래기 소금국을 주는데, 이를 세 끼 나누어 먹어야 한다. 말을 잘 안듣거나 움직이기라도 하면 이마저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정치범들은 이를 악물고 먹기위해 움직이지 않고 버티는데, 그러다보니 3개월이 지나면 폐인이 되어 들것에 실려나간다. 그리고는 5개월 가량 지나 대체로 병사한다."

"구류장에 잡혀가서 계호원 선생님한테 죽도록 두들겨 맞은 한진덕은 여자로서의 기능도 상실했다. 그리고 그녀는 웃옷 단추를 풀더니 가슴을 열어 보였다. 가슴이 온통 헌데다 딱지와 고름이 뒤섞여 벌겋게 부어 있었다. 고름 냄새가 풍겼고 보기만 해도 끔찍했다. 계호원 선생들이 쇠꼬챙이로 지졌는데 영 아물지 않는다고 했다. 한진덕은 량기철과 부화를 했어도 임신은 하지 않았으니 앞으로 쓸모가 있을거라 생각하고 살려두었던 것이었다. 93년 10월 경 굴산지구 43반에 감자를 실으러 갔다가 탈곡장에서 두 다리가 없이 앉은뱅이가 된 그녀를 만났다. 광차에 깔려 다리가 잘려나간 것이다. 탄광은 매일 사고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이다." (안명철 11, 13, 22호 경험자)

24 일반주민의 인식

북한 정치범수용소가 북한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북한주민들이 정치범수용소에 대해서 인식하는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322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4-1 정치범 처벌자 목격 및 관련 인식

조사 대상자 중 북한 거주 당시 정치적인 문제로 교화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목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직접 처벌 경험자 8.6%, 정치적 문제로 처벌 받은 사람을 목격한 경우 26.5%로 직접적 경험자와 목격자 비율은 35.1%로 나타났다.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들은 경험을 갖고 있는 비율은 31.6%였으며, 그러한 사건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는 비율은 33.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 주민의 1/3은 정치적 문제로 처벌 받는 것을 목격하거나 경험하였으며, 1/3은 그러한 사실을 들은 적이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정치적 문제로 인한 처벌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북한에서 정치범으로 처벌될 경우 가족들에게도 연좌제를 적용하여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4-2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인식

북한에서 정치범수용소(관리소)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중 정치범수용소를 직접 목격한 비율은 11.9%에 불과하지만,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75%로 존재를 모른다는 응답자 12.8%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

즉 북한주민의 86.9%는 북한에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연령이 낮거나, 일부 계층을 제외한 전체 북한 주민이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 및 제언

현재까지 증언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몇 가지 점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앞으로도 계속 요구된다.

둘째,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북한 당국은 정치범수용소의 수용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범수용소의 완전 해체를 위하여 보다 강력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요약문

| 발 행 일 | 2009년 12월 15일

| 발 행 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100-842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문의전화 | 북한인권팀 02)2125-9700

| F A X | 02)2125-9733

| 제 작 | 북한인권정보센터 02)723-6045

발간 등록 번호: 11-1620000-000259-01 비 매 품